

2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912.37 (+104.16)		837.65 (+10.78)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755 (-0.061)		1380.30 (-4.50)

HBM 확보 나선 엔비디아.. 삼성·SK ‘증설 탄력’

엔비디아, 반도체 계약규모 386조
삼전, HBM 대응 생산기반 확보
하닉, 국내외 AI메모리 기반 확충

엔비디아가 향후 필요한 메모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계약규모를 한 분기 만에 두 배 이상 늘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설 투자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계약 규모가 386조원에 달하고 증가세를 메모리 조달이 주도하면서 국내 양사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엔비디아, 13분기 연속 최대 매출… 내년 70% 성장

엔비디아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회계연도 2027년 2분기(5~7월) 공시에 따르

면 데이터센터 시스템에 필요한 메모리 조달과 반도체 생산시설 관련 계약 규모는 2790억달러(약 386조원)로 직전 분기 1190억달러(약 166조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 분기 사이 1600억달러(약 221조원) 늘었는데 주로 메모리 조달 확대가 이끌었다. 이에 엔비디아는 수년 뒤 필요한 물량까지 계약하며 AI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가파른 AI 수요는 실적으로도 확인됐다. 2분기 매출은 962억2000만달러(약 133조3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06% 늘어나며 13개 분기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엔비디아는 2028 회계연도에도 약 70%의 매출 성장을 예상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AI 인프라 구축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 평택·아산·천안 HBM 생산 확대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신규 반도체 공장이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장기 수요에 맞춰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과 충남 아산 온양·천안을 중심으로 HBM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평택에서는 HBM에 들어가는 첨단 D램 생산능력을 늘리고 아산 온양사업장에는 HBM 팹(반도체 생산 공장) 5개 라인을 구축한다. 천안에서도 HBM 대응 설비를 증설·현대화할 계획이다.

생산시설 확대와 함께 차세대 제품 공급도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 공급을 확대하고 주요 고객사에 HBM4E 샘플

플을 공급하고 있다. DDR5(5세대 D램 규격)와 소켓2(저전력 서버용 D램 모듈) 등 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제품 판매도 늘릴 방침이다.

◆SK하이닉스, 용인 증설 이어 美 거점 구축

SK하이닉스도 국내외 AI 메모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회사는 이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Y2와 청주 M17에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용인 Y2에는 35조2000억원을 투입해 HBM을 비롯한 차세대 D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청주 M17에는 19조1000억원을 들여 낸드플래시(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관하는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네팔 ‘기습 대홍수’ 직원 9명 연락두절 두산·남동발전 비상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기습 대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즉시 현지에 대응팀을 파견하고 대통령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는 등 총력 구조 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6면〉**

27일 외교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아퍼 트리술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산사태를 동반한 대홍수가 들이닥쳤다.

두산에너지빌 6명, 남동발전 3명
기습폭우·빙하호 폭발 겹쳐
히말라야서 ‘복합 자연재해’

이번 사고로 현장에 체류 중이던 두산 에너지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총 9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초 두산에너지빌리티 소속 연락두절 인원은 5명으로 알려졌다. 현지 채굴된 한국·네팔 이중국적 직원 1명이 추가 확인되며 6명으로 늘었다. 별도로 현장에 있던 두산에너지빌리티 직원 10명은 외국인 직원 약 20명과 함께 안전지대로 대피해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통신과 도로가 끊겨 고립된 상태다.

기상학자 및 현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몬순 철 막바지 기습 폭우와 히말라야 빙하호 폭발(GLOF)이 동시에 겹친 ‘복합 자연재해’로 파악된다. 지구 온난화로 상류 빙하 제방이 약화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무너져 내렸고, 토석류가 계곡을 따라 단시간에 현장을 덮쳤다. UT-1 프로젝트는 완공 시 네 팔 전체 전력의 약 20%를 담당하는 6억 4700만 달러(한화 약 8900억 원) 규모의 핵심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올해 말 준공 및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네팔 홍수 피해자 구조

26일(현지 시간) 네팔 누와코트 지역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 구조대원들이 돌발 홍수 피해자를 굴착기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AP·뉴시스

기준금리 2회 연속 인상… “물가 오름세 선제 대응”

한은, 연 2.75%→3.00%로
금통위원 7명 중 6명 ‘인상 찬성’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로 높여

한국은행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다. 반도체 수출·투자 호조에 내수 회복이 더해져 성장 전망이 크게 높아진 데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위험도 이어진 데 따른 두 차례 연속 인상이다. **〈관련기사 3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

했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려 3년 6개월 만에 인상을 재개한 데 이어 다시 금리를 높였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다. 황건일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 7월 인상 결정은 금통위

원 전원 찬성이었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3%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9%로 각각 높였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낮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6%로 높아졌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7%, 2.3%로 유지한 반면 근원물가 전망치는 두 해 모두 2.5%로 상향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한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금통위는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통위원들이 제시한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21개 가운데 연 3.25%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3.50%가 6개, 현수준인 3.00%가 5개였다. 현재보다 낮은 금리를 가리킨 점은 하나도 없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공공데이터, 국민에 투명하게 돌려드려야…안전한 개방 적극 고민할 때” **〈/사진 뉴시스〉**
▲장미란씨 사망, 범죄 가능성 낮아지만…전문가 “자살 단정 일러”

▲민주당 41%·국민의힘 20%…민주 1%p ↑·국힘 3%p ↓
▲국힘 윤리위원, ‘비밀유지 위반’ 윤민우 위원장 등 해임요구서 제출

▲정동영 “30년새 북 핵능력 10만배…완전한 비핵화 접근 어려워”
▲‘병역거부자 채용금지·해고법’ 2028년 2월까지 적용…“헌법불합치”

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 근로자 실질임금 석 달째 줄었다

고용노동부 7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근로자 1인 평균 명목임금 409만원
실질임금 341만원… 전년비 0.1%↓

근로자 실질임금이 석 달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내리 감소했다. 실질임금의 3개월 이상 후퇴는 2023년 4~8월(5개월 연속) 기간 이래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7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및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은 명목임금 40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달 대비로 3.1%(12만3000원)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평균 실질임금은 341만2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1% 줄었다. 실질임금은 올해 4월 -1.0%, 5월 -1.4%를 기록한 데 이어 3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3개월 이상 감소는 최근 3년 사이 첫 사례다.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와 올해 상반기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2022년 고물가 시기 이후 임금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평이한 임금 상승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은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평균 기준으로도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03만6000원으로 2.1% 늘어

난 데 반해 실질임금은 337만 원으로 0.8% 줄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7월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7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6000명(1.1%)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728만 명으로 7만8000명(0.5%) 증가했다. 임

시일용근로자는 207만1000명으로 14만 7000명(7.6%), 기타종사자는 1000명(0.1%) 늘었다. 전체 종사자 증가분 22만 6000명 중 임시일용근로자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했다.

정 과장은 “고용이 회복될 때 임시일용이 먼저 증가하고 노동시장이나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이후 상용직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평균적인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11만9000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 및 보험업은 2만 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만 5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1만4000명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증가폭은 4월 3000명, 5월 7000명, 6월 1만2000명, 7월 1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도 5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역시 3000명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건설업 종사

자가 7만2000명 감소하는 등 23개월간 감소세가 이어졌던 데 비해 최근 증가폭은 3000~7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도 2만8000명 줄면서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노동부는 대형마트 폐업·폐점 등이 최근 도소매업 종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입직·이직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7월 입직자는 114만3000명으로 17만 7000명(18.3%), 이직자는 112만7000명으로 17만8000명(18.8%) 증가했다. 이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6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1000명(24.3%) 증가했다.

정 과장은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보통 임시일용직이 90% 정도를 차지한다”며 “계약기간 종료 측면이 강하고 구조조정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비자발적 이직 증가에는 건설업 등 임시일용근로자가 많은 업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출격… 플래그십-중저가 승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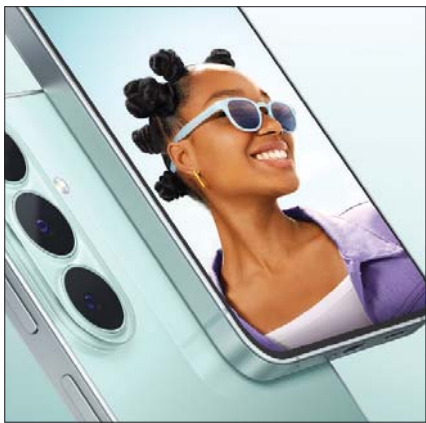
256GB 모델 기준 104만5000원
준플래그십 제품 통해 수요층 확대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준플래그십 ‘갤럭시 S26 FE’를 앞세워 수요층 확대에 나선다. 중저가 A시리즈와 플래그십 S시리즈 사이를 잇는 FE를 통해 변화하는 스마트폰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9시 온라인 ‘삼성 갤럭시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S26 FE’를 공개했다.

FE는 갤럭시 S시리즈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을 낮춘 준플래그십 제품군이다. 플래그십 제품 구매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나 기존 중저가 제품보다 높은 성능을 원하는 수요를 겨냥한다. 전작인 갤럭시 S25 FE는 국내에서 256GB 모델 기준 94만6000원에 출시됐다.

신제품에는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갤럭시 S26 FE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엑시노스 2500’과 6.7형 다이내믹 AMOLED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카메라 기능을 지원하며 최대 7세대에 걸친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가격은 256GB 모델 기준 104만5000원이다.

S26 FE 출시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대별 수요 변화와 맞물린다. AI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모바일용 D램과 낸드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에 민감한 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판매가격이 낮은 제품일수록 부품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자체적으로 흡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200달러 미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99달러 이하 스마트폰 판매량도 지난 3월 1200만대 아래로 떨어져 전년 동월보다 약 40% 감소했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초 18~19%에서 올해 3월 12%까지 낮아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제품은 견조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동남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150달러 미만 제품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250~499달러 제품도 11% 줄었다. 같은 기간 500~699달러 제

품은 74%, 700달러 이상 제품은 18% 증가했다.

삼성전자도 이 같은 흐름에서 선방했다. 2분기 동남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지만 삼성전자 출하량은 6% 증가했다. 주요 스마트폰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하량이 늘었다. 시장 점유율은 24%로 사오미(18%), 오포(17%), 트랜선(15%), 애플(9%) 등을 앞섰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보급형 제품에서도 가격 인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미국에서 199.99달러에 출시한 갤럭시 A17 5G는 현재 249.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A시리즈부터 FE와 S시리즈까지 가격대별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A시리즈가 중저가 시장을 담당한다면 FE는 A시리즈와 S시리즈 사이에서 플래그십 진입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저가폰 수요가 줄고 높은 가격대의 제

품 비중이 커질수록 FE의 판매 성과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 전략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제품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국가통신규제기관(ANATEL) 인증을 받은 갤럭시 A08 4G는 전작과 같은 미디어텍 헬리오 G99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는 전작의 5000mAh보다 늘어난 6000mAh 수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A08 4G와 갤럭시 A18이 오는 10월 출시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전반의 원가 부담을 높이지만 판매가격과 마진이 낮은 저가 제품은 이를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저가폰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가격과 성능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한 제품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농·어업계 등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분석에 나선다. 또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개최 계획, 해외수주 지원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력을 지역·다자 차원으로 확장해, 우리 경제의 대외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CPTPP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계의 우려와 예상 영향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이 과정을 거쳐 CPTPP 가입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

하고,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다음 달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교통·물류·인재양성 등 3대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금융·정책 경험을 결합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아프리카와는 다음 달 8~11일 열리는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계기로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대규모 증설에도 공급부족 지속 전망

≫ 1면 ‘HBM 확보 나선…’서 계속

신규시설 양산까지 수년 이상 필요

미국에서는 HBM 후공정 거점을 구축한다. SK하이닉스는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엿에서 HBM 첨단 패키징(여러 반도체를 연결하는 후공정) 생산기지 착공식을 연다. 38억7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를 투자해 생산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고 2028년 하반기 양산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증설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생산 시설이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이같은 메모리 판매 확대와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신규 생산시설이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이 필요한 만큼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생산 확대 노력에도 공급 제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HBM4와 DDR5(5세대 D램 규격) 등 고부가 제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지난 7일 용인·청주 투자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춰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결정”이라며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기준금리 전망 3.50%까지… 6개월 내 추가 인상 가능성

한은, 금리 인상 파급효과 점검

6개월 뒤 금리 전망 중앙값 3.25%
금통위원 전망 3.00~3.50%로 분산
GDP갭 플러스 전환시점 앞당겨져
물가·경기·금융안정 보며 속도 조절

한국은행이 물가 오름세가 더 넓게 확산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렸다.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의 중앙값은 연 3.25%로, 금통위는 연속 인상의 파급 효과를 점검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한 데 이어 두 차례 회의 연속 금리를 높였다. 금통위원 6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황건일 위원은 연 2.75%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인상 시점 앞으로 옮겼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속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물가를 꼽았다.

신 총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강한 성장세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소득 여건 개선으로 물가 상승세가 보다 넓게 확산하고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3%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9%로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2.7%, 내년 2.3%로 유지했지만 근원물가 전망은 각각 2.5%로 상향했다.

신 총재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하

는 시기도 크게 앞당겨져 “지금도 거의 임계치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변진 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인상 시점을 앞당겨 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다.

신 총재는 “일정 폭의 금리 인상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앞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만큼 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저하는 호미로 이번에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과 환율도 조기 대응의 배경이 됐다. 신 총재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현재 46.5 수준이며 9월 발표될 수치는 장기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당히 깊은 우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대로 안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추가적인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의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정책방향보다 시점을 둘러싼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이를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며 “시장에서 8월에 인상하느냐 10월에 인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저하는 조기 대응으로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기준금리 중앙값 3.25%

한은이 공개한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연 3.00%가 5개, 3.25%가 10개, 3.50%가 6개로 나타났다. 중앙값은 현재보다 0.25%p 높은 연 3.25%다. 한 차례 추가 인상이 금통위원 전망의 중심에 놓였지만 현 수준 유지부터 두 차례 추가 인상까지 시각은 갈렸다.

신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방향 회의

가 네 번 있는데 중간치가 3.25%,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정도”라며 “어떻게 보면 완만한 인상세”라고 말했다.

이어 “연거푸 두 번 인상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점검해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만큼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지난달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은 빠졌다. 하지만 의결문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모든 조건부 금리 전망도 현 수준 이상에 놓여 있어 인상 종료보다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린다.

다음 인상 시점은 8·9월 소비자물가와 2분기 국내총생산 잠정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가 소비와 내수를 확산하는 정도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신 총재는 “두 번 연거푸 올림으로써 상당히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를 했고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며 “기준금리가 3%로 가면서 모든 주체에 미치는 여파를 점검하고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1면 ‘네팔 기습 대홍수…’서 계속

엔비디아, 13분기째 최대 매출… 내년에도 고성장 자신

AI 데이터센터 매출 117% 급증
분기 매출 133조·영업익 88조
고객 수요 기준 매출 두 배 가능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13개 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차세대 AI 가속기 판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70% 안팎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며 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엔비디아는 26일(현지시간) 회계연도 2027년 2분기(5~7월) 매출이 962억2000만달러(약 133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637억3000만달러(약 88조3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6%, 124% 증가했으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18%, 19% 늘었다.

시장 기대도 넘어섰다. 매출은 시장 전



엔비디아는 26일(현지시간) 회계연도 2027년 2분기(5~7월) 매출이 962억2000만달러(133조3147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망치인 920억7000만달러(약 127조5000억원)보다 41억5000만달러(약 5조7000억원) 많았다. 조정 주당순이익도 2.22달러(약 3070원)로 예상치인 2.09달러(약 2890원)를 상회했다. 순이익은 596억9000만달러(약 82조7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26% 증

가했으며 총이익률은 75.0%를 기록했다.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데이터센터 사업이다. 데이터센터 매출은 890억달러(약 123조3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17% 늘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장비 매출이 크게 늘면서 AI 투자가 가속기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됐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실적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7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1080억달러(약 149조6000억원) 안팎으로, 중국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매출을 반영하지 않고도 직전 분기보다 두 자릿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 전망은 시장 예상보다 높게 잡았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예적으로 2028 매출 증가율을 약 70%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

인 40%대 중반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고객 수요는 회사가 제시한 성장 전망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고객사 수요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매출이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공급 여건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70%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부품과 생산 능력 확보도 크게 확대했다. 엔비디아의 향후 부품 구매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계약 규모는 직전 분기 1190억달러(약 165조원)에서 2790억달러(약 386조원)로 한 분기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회사는 앞으로 수년간 필요한 제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늘렸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인텔, AI 수요에 설비투자 28조 베풀… 삼성도 美 2나노 확장

첨단공정 놓고 파운드리 경쟁 격화

인텔, 14A 2028년 양산준비 본격화
삼성, 테일러공장 2나노 생산능력 확충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늘자 인텔이 올해 설비투자를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로 확대했다. 차세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양산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하면서 미국 생산시설을 확충 중인 삼성전자와의 첨단공정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27일 인텔에 따르면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도이체방크 기술 콘퍼런스에서 반도체 수요와 설비투자 계획을 밝혔다.

인텔은 올해 설비투자를 기존 180억달러(약 24조9000억원)에서 200억달러로 늘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늘면서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반도체 생산장비와 기반 투자도 늘린다. 인텔은 데이터센터용 CPU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AI 수요에 투자 확대… 14A 양산 준비
첨단공정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텔은 현재 주력인 18A(1.8나노급) 공정의 수율(정상 제품 비율)이 내부 목표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 14A(1.4나노급) 공정 역시 반도체 결함을 줄

이는 속도가 당초 목표보다 빠르다는 설명이다.

인텔은 이를 바탕으로 14A를 2028년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인텔은 14A 공정을 맡길 고객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진스너 CFO는 14A를 검토하는 기업이 늘면서 경영진이 매우 고객사와 만나 향후 맡길 제품과 생산 물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파운드리 사업 대부분은 인텔 자체 반도체 생산에서 나온다. 인텔 파운드리라는 2분기 57억6500만달러(약 8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억89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삼성도 美 증설… 추가 고객 확보 나서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수요에 맞춰 미

국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은 테슬라와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을 첨단공정 생산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테일러 1공장은 올해 가동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2나노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테일러 2공장도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객 확보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고객 주문 증가로 파운드리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AI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추가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metro

정부, 신속대응팀 파견 기업 수장들도 ‘현지행’

사고 직후 정부와 기업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전날 밤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 총 11명 규모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파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외 체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시하며 이날 예정돼 있던 수석보좌관회의와 여당 의원 초청 오찬 등 국정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李 국정 일정 전격 연기

외교·소방·경찰 11명 투입

네팔 당국과 공조 수색 총력

이 대통령은 직접 ‘네팔 홍수 관련 국민 피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기업 수장들도 현장으로 직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영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네팔로 출국했다. 남동발전 역시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본사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캠프를 조성하고 네팔 정부 및 군부대와 공조 수색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홍수로 네팔과 중국 국경 지대에서 최소 160명이 사망하고 수백여명이 실종되는 등 현지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 구조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

항노화 시장 조준... 'K-세포치료제' 밸류체인·상업화 속도전

HLB그룹, 계열사 간 협업 극대화
HLB이노베이션 자회사 편입으로
국내 R&D·아시아 사업 거점 확보
바이오솔루션, '스페로큐어' 임상
프롬바이오, 지방줄기세포 주력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항노화 시장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세포치료제 기업들이 원천 기술은 물론 상업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임상,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강화, 생산 인프라 등 시장 안착을 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화한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계열사 간 협업을 극대화한다. HLB이노베이션은 HLB생명과학이 보유한 HLB셀 지분 99.30%를 인수한다. HLB이노베이션 자회사로 편입시켜 세포치료제 및 재생의학 분야의 국내 R&D 및 아시아 사업 거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솔루션

특히 HLB이노베이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차세대 CAR-T 원천기술인 'KIR-CAR' 플랫폼과 HLB셀의 재생의학 독자 기술을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HLB셀은 인체·동물 유래 일차세포의 분리·배양·동결보존, 정상세포 배양 기반의 세포외기질(ECM) 생산, 바이오인공관 등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춰

왔다.

HLB그룹은 이번 인수가 면역 세포 기능 저하 극복과 조직 재생을 응용하는 세포치료제 전초 기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LB그룹 측은 "자체적인 상업화 기반을 다진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사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후속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HLB그룹이 글로벌과 국내를 잇는 대형 밸류체인 재편에 나섰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혁신 제형과 정교한 데이터 수집 체계를 무기로 노화 질환 시장 정조준에 나섰다.

바이오솔루션은 대표적 노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무릎 관절강 내 1회 주사 투여 방식의 동종 연골세포치료제 '스페로큐어' 국내 임상 1/2a상을 본격화한다. 스페로큐어는 관절강 주사용 세포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 관절경 수술이나 절개 수술과 달리 1회 주사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제이앤피메디와 협업한다. 성공적인 임상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부터 데이터 관리, 통계 분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동종 완화를 넘어 관절 구조의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교한 관절 재생(영노화) 데이터를 통해 임상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세포치료제 생산을 뒷받침하는 원료·약품 품질관리로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등 규제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업 프롬바이오는 마타카바이오랩스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마스터세포은행과 위킥세포은행을 마련했다. 지방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 재생과 항노화 치료제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후보 세포의 특성,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물론, 장기 보관 환경에서 세포 특성 유지와 제조 일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관계자는 "과이프라인 구축과 초기 단계 연구가 계속되는 한편, 상업화 실행력을 갖춘 기업들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노릴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의 개화에 발맞춰 판로를 여는 기업들이 K바이오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K-스낵' 열풍... 오리온·롯데웰푸드, 세계 입맛 잡았다

오리온, 감자스낵 매출 8740억
中 법인 매출 41%... 스윙칩 '인기'
롯데웰푸드, 뽀빠로 글로벌화 추진

K-푸드 열풍의 중심이라면과 장류를 넘어 '스낵'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오리온과 롯데웰푸드 등 국내 주요 제과업체들이 현지화 전략과 생산 인프라 확대를 발판 삼아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고쳐 쓰고 있다. 과거 한인마트나 아시안마켓 위주로 유통되던 한국 과자들이 이제는 월마트, 코스트코 등 글로벌 메인 유통 채널의 중심 매대를 차지하는 모습이다.

◆ 오리온 감자스낵 연매출 1조 눈앞

초코파이로 글로벌 성공 신화를 썼던 오리온은 이제 '감자스낵'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삼고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있다. 오리온의 지난해 감자스낵 매출은 8740억원으로, 이 중 해외매출 비중이 무려 73%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9%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감자스낵 단일 카테고리로는 '연매출 1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포카칩', '오!감자', '스윙칩', '예감' 등 오리온의 대표 감자스낵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



중국매장에 진열된 오감자, 스윙칩. /오리온

과를 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감자스낵이 지난해 법인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스윙칩'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 전통의 감자 초코파이를 제치고 중국 법인 내 매출 2위 브랜드로 올라섰다. 현지 입맛을 반영한 '고수타코맛', '패션프루트맛' 등 차별화된 신제품도 성장에 기여했다.

베트남은 '포카칩(현지명 오스타)'이 글로벌 1위 브랜드인 '레이즈'를 제치고 2017년부터 베트남 감자스낵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초코파이가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국민적 사랑

을 받는 가운데, 감자스낵 역시 스포츠 마케팅 및 스낵 전용 매대 확대를 통해 입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에서도 체리, 라즈베리 등 현지 베리류 잼을 넣은 맞춤형 초코파이와 감자스낵 판매 호조로 상반기 매출이 32.1% 급증했다.

오리온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내 청주공장과 중국 스윙칩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며 글로벌 수요 폭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롯데웰푸드 '뽀빠로' 글로벌화 매진

롯데웰푸드는 대표 브랜드 '뽀빠로'를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올해 상반기 뽀빠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91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을 올렸다.

특히 상반기 해외 매출(530억원)이 국내 매출(385억원)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롯데웰푸

드의 해외 매출은 2020년 290억원에서 지난해 870억원으로 3년 만에 200% 폭증했으며, 뽀빠로 최대 대목인 '뽀빠로데이(11월 11일)'가 포함된 하반기 실적이 반영되면 올해 사상 첫 해외 매출 1000억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7월 인도 법인 공장에서 뽀빠로 첫 해외 생산을 시작한 점이 실적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인도는 초코파이 시장점유율 독점에 이어 건과 부문 매출이 28.1% 늘어나는 등 핵심 해외 거점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글로벌 앰배서더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앞세워 뉴욕 타임스스퀘어 및 LA 중심가에서 초대형 옥외광고와 현지 체험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다. '뽀빠로데이'를 단순 제품 판촉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플레이 문화로 확산시킨다는



롯데웰푸드 뽀빠로 글로벌 앰배서더 스트레이 키즈. /롯데웰푸드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고물가에 달히는 지갑... 2분기 실질 소비지출 0.4% 늘어

데이터처 '2분기 가계동향조사'

올해 2분기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석유류를 비롯한 소비재물가의 급등이 가계 소비를 제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2000원으로 전년 같은분기 대비 3.4%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시 실질 소비지출

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질 소비지출 증감은 지난해 2분기(-1.2%)와 3분기(-0.7%) 하락한 뒤 4분기(1.2%)와 올해 1분기(3.1%)에는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내렸다.

소비지출 12대 비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1.5%), 주거·수도·광열(1.2%), 가정용품·가사서비스(15.2%), 보건(2.8%), 정보통신(0.7%), 오락·문화(2.9%), 교육(1.7%), 음식·숙박(0.8%)의 실질 소비지출은 증가했다.

반면 주류·담배(-2.5%), 의류·신발(-1.0%), 교통·운송(-10.1%), 기타상품·서비스(-1.3%) 등에 대한 지출은 감소했다.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자비용(12.1%)과 사회보험(5.6%)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었고 가구간 이전지출(-4.1%)과 비경상조세(-12.3%)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정

부 정책이 가계 소득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5%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사업소득(97만7000원, 3.8% ↑), 재산소득(6만7000원, 21.3% ↑), 이전소득(93만1000원, 20.4%) 등이 크게 늘었다. 이전소득이 증가한 건 고부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정책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23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5.2% 증가했다.

박순옥 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월평균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소득은 12개 분기 연속, 소비는 2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액이 늘고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2분기 물가상승률이 3.0%로 조금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분기 소비지출이 조금 더 컸던 건 설 명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요즘 일상 365일 안심되도록

KT는 AI가 신종·변형 스팸 문자까지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차단하는
AI 스팸 차단 서비스를 모든 고객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KT와 KT 알뜰폰 전 고객에게 무료 제공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적용)

AI가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차단

AI가 문자 패턴을 분석하여
신종·변형 스팸까지 실시간 탐지하고 차단

365일 24시간 언제나

주말·야간 포함한 상시 운영으로
고객 일상을 늘 안전하게



민주 “중도·실용” vs 국힘 “정권 심판”… 정기국회 전면전

여야, 정반대의 노선·전략 내세워
민주, 워크숍서 국회 입법전략 논의
국힘, 연찬회 열고 대야 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각각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입법 전략과 당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중도·보수’ 세력을 포용하고 민생과 실용에 영점을 맞춰 민주당 장기 집권의 발판을 놓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증시·안보 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집권 이후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가 ‘지옥’처럼 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멈춰 세우겠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민생을 위한 대개혁, 성장을 위한 대전환, 미래를 위한 대투자’란 슬로건 아래 워크숍을 진행했다. 청와대에서 홍익표 정부수석과 정을호 정부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당 대표는 ‘민주의 황금시대’라는 사명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가 치열했던 이유는 정청래 전 대표와 자신의 방법론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진보 세력이 단결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본 정 전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당의 아젠다를 민생·실용에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도·보수 세력까지 꺼안아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영점을 다시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이 새로운 ‘A(Affordability·감당 가능한)·B(Broadening·확장)·C(Competence·유능) 위주의 아젠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젠다의 하위 공략 분야로 청년, 문화, 글로벌, 속의민주주의 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여당이 갖게 되는 성장 친화적인 입장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적인 위치에 (대한민국이) 있지만, 더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약자의 문제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에서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부동산 공급 압박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문제 해결, 경찰개혁까지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단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연찬회를 열고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약속”이라는 문구 아래 모였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힘이 민생을 해결한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안전을 해결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본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슬로건 제창 및 퍼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매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르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떠한가”라며 “부동산 지옥에 증시 도박판에 일자리는 절벽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도 위태롭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한미 동맹은 흔들리고 우리 군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과연 이대로 4년을 더 맡겨놓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멈춰세우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

민의 삶을 일으킬 제대로된 답을 우리 당이 내놓아야 한다”면서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만 바라보면 우리 당 국회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함께 막아내고 무너진 것은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필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 정권이 여전히 무능하고 추악한 실상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며 “그것이 지금 여론 조사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파괴와 해체의 실상을 낱낱이 검증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보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박근혜, 野 연찬회 참석… 통합 메시지 주목

정점식 원내대표 초청으로 자리
화합·중도 외연 확장 강조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지원에 이어 당 주요 행사에도 나타나면서 정치적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2년 자신을 구심점으로 보수 통합을 이끌었던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열리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 연찬회에 직접 자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충청·영남·강원 지역 등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선거 유세 지원에 이어 당 공식 행사에도 참석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에게 연찬회 초청 의사를 전한 건 정점식 원내대표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 예방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우리 당이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노선과 당협위원장 직선제 등을 두고 내홍 중이다. 특히 장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중진들의 불출마 등 헌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른바 ‘중진 희생론’도 내세우고 있어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비(非)당권파 의원들에게 잇따라 징계를 내리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연찬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과 진영 내의 ‘큰 어른’ 자격으로 화합과 단결, 중도 외연 확장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수의 대통합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 갈등으로 갈라져 나온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미래희망연대와 합당해 친박 세력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는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도 끌어안았다. 비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수 진영 통합을 이룬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李 “덜수록 더 지원”… 지방우대 정책 확대

시장·군수·구청장들과 간담회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에서 거리가 덜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계속 발굴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주재하고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 31주년 됐다. 그간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은 크게 성장했지만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은 앞으로도 참으로 많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6일)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시·도지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각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덜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며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합리적인 안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네팔 실종 국민 수색에 가용자원 총동원”

李, 수보회의·여당 오찬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네팔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해 우리 국민들이 실종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네팔 정부와의 협

력을 위해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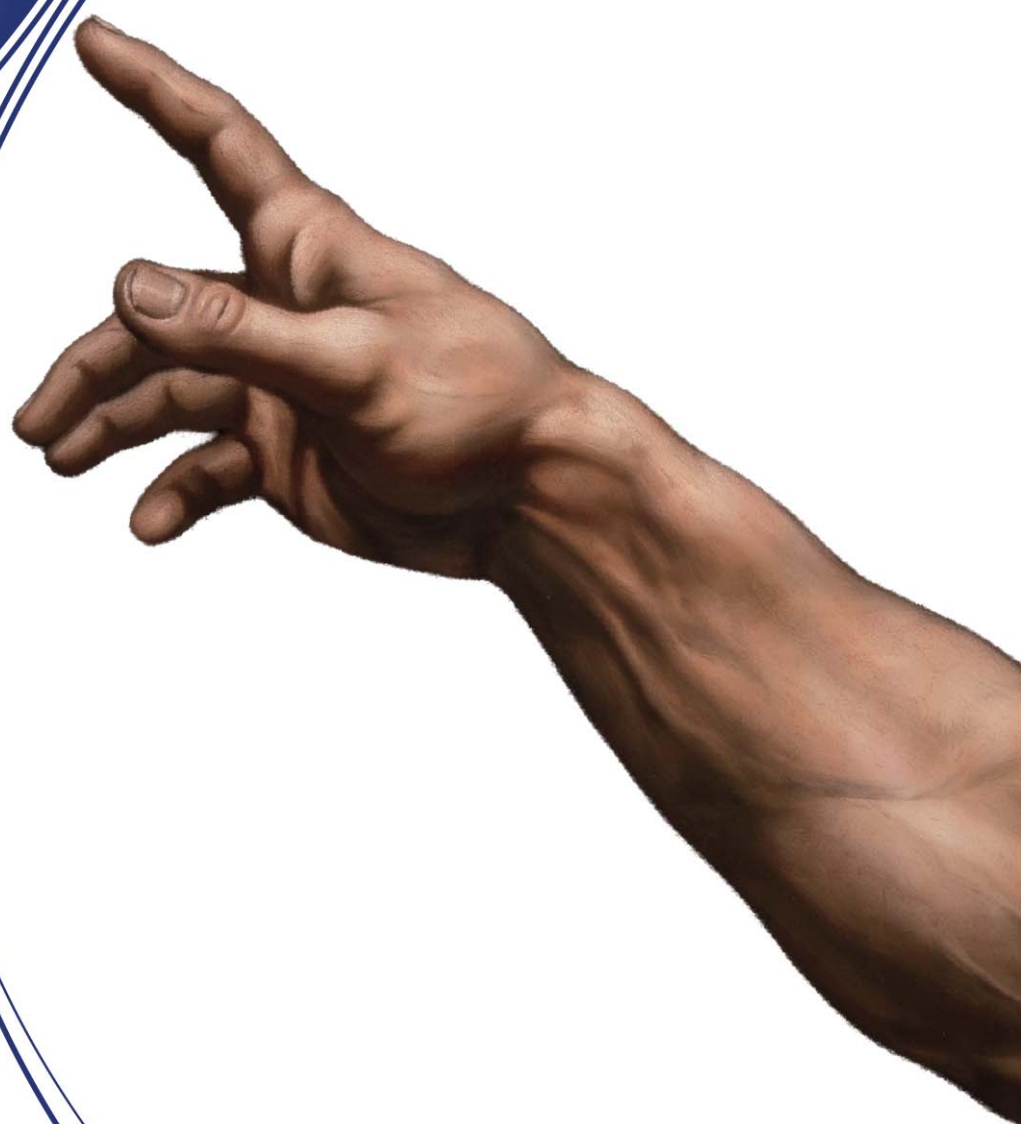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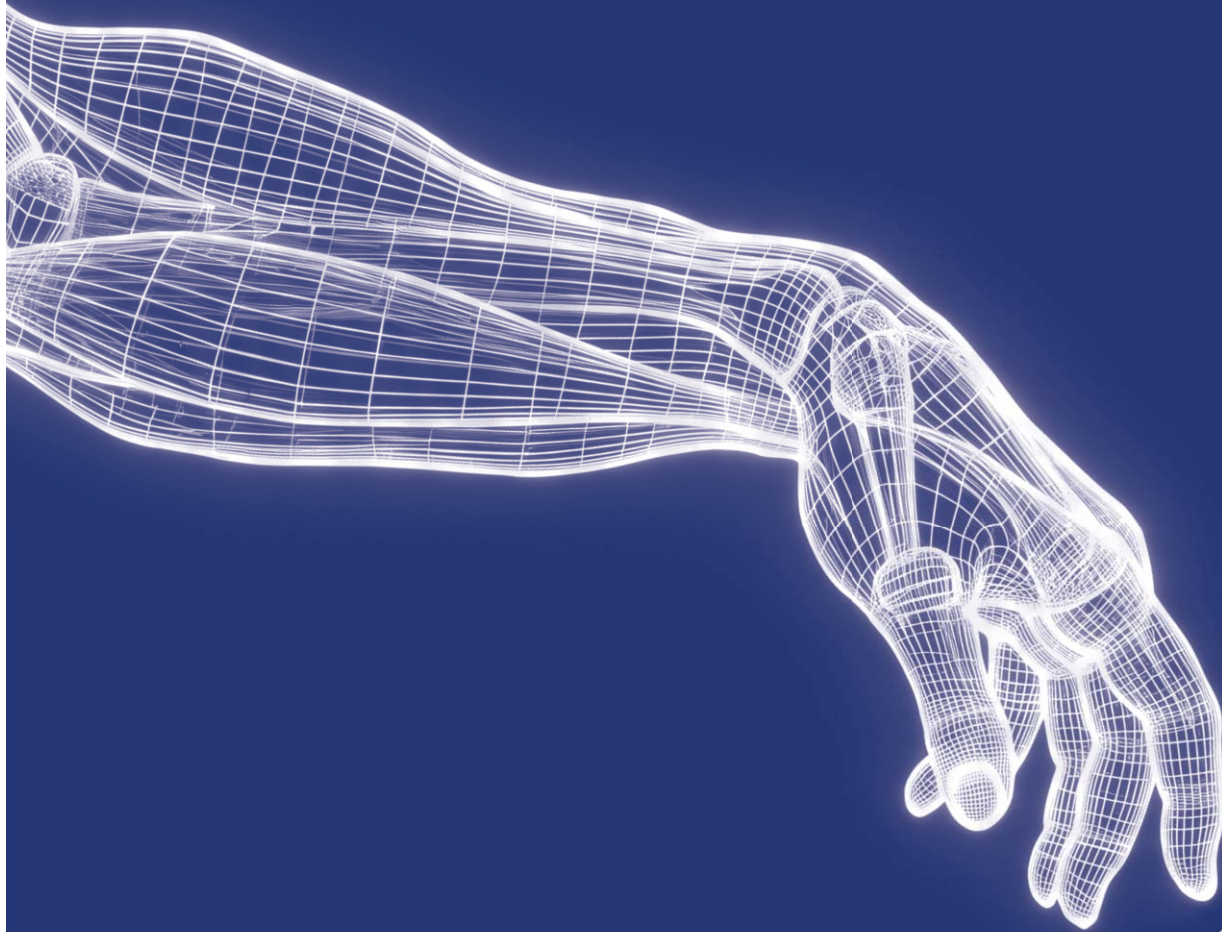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오후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네팔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수보회의를 순연했다. 28일 예정돼 있

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현지 대사관, 또 현재 이동 중인 신속대응팀, 현지에 우리 해당 기업까지 가용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네팔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기술에 창의적 감각을 더하다

AI 초융합대학

상명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서울캠퍼스 + 천안캠퍼스

2026. 9. 7(월) 10:00 ~ 9. 11(금) 18:00

2금융권 중금리 대출 급증… ‘건전성 관리’ 과제

금융당국 총량관리 인센티브 확대
신용 50%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5.9~15.27% 생활안정대출
한도조치 승인율 98%→99% 확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중저신용자들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 속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에 총량 관리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저축은행에 이어 캐피탈사들도 공급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출길이 좁아진 중저신용자들에게 새로운 자금줄이 열렸지만, 단기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가 숙제로 남았다.

27일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최근(지난달 27일~이달 23일) 진행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한도 조회 건수는 총 1만1806건에 달한다.

주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 사이의 한도 조회 건수가 3586건으로 가장 높았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역대 최대치다.



서울 시내 2금융권 지점의 대출 창구 안내 이미지.

/뉴시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은 중·저신용자 전용 금융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고객이 대출 대상이며 금리는 연 5.9%~15.27% 사이에서 형성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120개월이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한도 조회 승인율이 높아져서다. 실제 지난달 98%였던 한도 조회 승인율이 이달에는 99%에 달했다. 중금리대출 한도를 조회한 고객 100명 중 99명 필로 대출 가능한 한도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과 같은 상품은 승인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 데 반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한도 승인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 “한도 승인율이 높아지면서 조회수와 직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은 중금리대출 상품을 더 확대하는 분위기다. 이달부터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100%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각 80%, 40% 예외 비율을 적용

받아 왔다.

실제 다올저축은행은 지난달 ‘다올중금리생활안정대출’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NH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 19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내놨다.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행렬에 뛰어든다. 올해 하반기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정책 보증부 상품인 ‘사잇돌대출II’ 상품을 선보인다.

다만,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가 숙제다. 가계대출 총량에서 중금리대출 증가분이 제외되면서 대출 영업 확대가 가능해졌으나 대출 상품이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인 만큼 연체율 문제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과 동시에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업권이 고민하는 딜레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보험사 ‘투자손익 개선’ 상반기 순익 9조… 전년비 13% ↑

생보사 순익 3.9조로 17.7% 증가
손보사 9.6% 늘어 5조884억 기록

투자손익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와 30개 손해보험사의 총 당기순이익은 9조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 (1조366억원) 증가했다.

생보사 순이익은 3조9254억원으로 같은 기간 17.7% (5892억원) 증가했다. 이자·배당수익과 금융자산 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손실부담비용과 예상차손실 등의 영향으로 보험손익은 악화됐다.

손보사 순이익은 9.6% (4474억원) 늘어

〈보험사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5.상반기(A)	'26.상반기(B)	증감(C=B-A)	증감률(C/A)
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이익	33,363	39,254	5,892	17.7
	보험손익	26,147	19,297	△6,850	△26.2
	투자손익	17,677	26,803	9,126	51.6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	46,410	50,884	4,474	9.6
	보험손익	37,951	43,261	5,310	14.0
	투자손익	25,045	27,601	2,557	10.2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영업외손익	△292	△1,003	△712	손실확대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79,773	90,138	10,366	13.0

/자료=금융감독원

난 5조884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자산처분·평가의 등으로 인한 투자손익과 함께 손실계약 환입·일반보험 손익증가 등에 따른 보험손익이 함께 개선되면서다.

양 업권 모두 수입보험료가 늘었다. 상반기 보험회사의 총 수입보험료는 134조9348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생명보험

사는 65조2045억원으로 8.4%, 손해보험사는 69조7303억원으로 8.6% 올랐다.

특히 생보사는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퇴직연금 등 모든 부문에서 수입보험료가

늘었다.

상반기 총자산이익률(ROA)은 1.28%로 0.04%포인트(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52%로 2.75%p 하락했다.

보험사의 총자산은 1467조9000억원, 총부채는 1213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각각 9.2%, 3.2%씩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게 됐다”며 “또한,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 감소,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총자본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 등으로 금리·환율·주가 등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손익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KB손해보험 저소득 어르신 300명 ‘식료품 패키지’ 지원

KB손해보험은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 ‘어르신 한달 한상’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저소득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료품 정기배송과 안부 확인을 결합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에게는 6개월 동안 매월 1회 식료품 패키지가 제공된다.

미래에셋생명 지역어르신 방문 봉사

미래에셋생명은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봉사단이 서울 동작구 재가노인복지기관과 함께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방문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일상생활에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재가 어르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준비한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피며 안부를 나눴다. 물품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 한명 한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 속 어려움을 살폈다.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보탰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임직원들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카드사·여전사 상반기 순익 동반 상승

각각 전년비 5.6%·25.4% 올라
연체율도 상승 건전성 지표 악화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의 순이익이 나란히 증가했다. 다만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29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683억원) 증가했다.

총수익은 14조58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카드 대출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이 오른 영향이다. 총비용은 13조2941억원으로 1.4% 올랐다. 대손비용이 감소했으나 카드비용, 판

매 관리비 등이 확대됐다.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다. 카드사 상반기 연체율은 1.54%로 전년 말 대비 0.02%포인트(p) 올랐다. 신용판매채권과 카드대출채권을 합산한 카드채권 연체율은 1.61%로 같은 기간 0.07%p 올랐다. 고장이하야신비용은 1.13%로 전년 말보다 0.02%p 하락했다.

한편,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는 당기순이익 2조235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23억원 (25.4%) 증가했다.

총수익 16조4547억원, 총비용은 14조2195억원으로 각각 4.4%, 1.7%씩 올랐다. 총수익은 리스·렌탈·할부 수익 및 유가증권 관련 수익, 신기술금융수익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2.29%로 전년 말 대비 0.18%p 상승했다.

/안재선 기자

도·노·강 중심 서울집값 81주 연속 상승세

부동산원, 전주 대비 0.29% 상승
세제개편안 이후 강남권은 하락세

서울 집값이 8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랑구를 비롯해 중저가 지역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반면 세곡부담에 강남권은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4일 기준 전주 대비 0.29% 올랐다. 상승폭도 전주(0.22%)보다는 0.07%포인트(p)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관망세를 보이며 가격이 조정된 매물로 하락 거래가 나타났지만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포착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랑구와 함께 노도강(노원·도

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0.5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성북·강북구(0.55%)와 도봉·노원구(0.54%)를 비롯해 성북구(0.55%), 서대문구(0.53%), 강서구(0.50%) 등도 상승률이 0.5%를 웃돌았다.

반면 강남권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한 주간 각각 0.04%, 0.02% 하락했다.

경기는 반도체 배후 지역인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쭉이면서 0.23% 올랐다.

수원 영통구가 0.75%나 상승했으며, 용인에서는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0.66%, 0.63% 올랐다. 화성시 동탄구의 상승률도 0.54%에 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重, 누적수주 100억달러 돌파... 수익성 개선 속도낸다

상선 58억弗 수주... 연간목표 달성
LNG·FLNG 중심 경쟁력 강화
FDC 등 차세대 해양제품 개발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를 중심으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과거 대규모 손실을 안겼던 해양플랜트 사업은 FLNG를 중심으로 다시 주력 수주원으로 부상했고, 고부가 값급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올해 상선 34척, 58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57억달러)를 102% 달성했다. FLNG 2기를 포함한 누적 수주는 102억달러로 전체 목표(139억달러)의 73%다. 국내

조선3사 중HD한국조선해양(180억8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해양플랜트에서는 독주가 두드러진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6월 코탈 2·텔핀 1호 FLNG를 잇달아 수주해 해양 부문에서만 44억달러를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기준 1억1300만달러에 그쳤고, 한화오션은 대형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가 없다. 텔핀 2호기와 웨스턴 FLNG까지 추가 수주하면 오는 2030년까지 건조 물량을 확보할 전망이다.

과거 대규모 손실 이후 해양플랜트 수행 방식도 달라졌다. 삼성중공업은 익시스 부유식 해양가스처리설비(CPF)와 에지나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첫 대형 해양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에서 설계 물량 증가와 자재

발주·공정 지연으로 대규모 원가 손실을 냈다.

현재는 FLNG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생산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선체·화물창·주요 장비 사양을 표준화한 독자 모델 'MLF-N'을 개발하고 엔지니어링·조달·생산 데이터를 연계해 공정 관리도 체계화했다. 거제조선소에서는 FLNG 3기를 동시에 건조 중이다.

현재 경쟁사에 뒤처진 수익성도 내년부터 본격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이 오는 2028년 2분기까지 상선 매출에서 LNG선 비중이 때 분기 50%를 웃돌 것으로 봤다. 조선 3사 중 유일하다. 2028년 인도 예정 LNG선 슬롯 23척을 모두 채웠고, FLNG 조기 인도 인센티브도 기대된다.

보수적인 한계지도 원화 강세 때 수익

성을 방어한다. 사실상 전액을 해지해 수주 당시 원화 수익성을 고정,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변동을 줄인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해양 제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개념설계 인증(AiP)을 받은 데 이어 6월 캐피탈클린에너지캐리어스·로이드선급과 업무협약을 맺고 100MW급 FDC 설계 특허를 출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특수선 사업 비중이 작아 방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고부가 가스선과 FLNG 중심의 견조한 수주 구조를 갖추고 원가 관리 역량도 높이면 중장기 실적 안정성은 더욱 탄탄해졌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metro



기아 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블랙 에디션.

현대차·기아 SUV 스페셜 트림 확대

현대자동차·기아 가스포트유틸리티차(SUV)에 검은색을 입힌 스페셜 트림을 잇따라 선보이며 상품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기아는 27일 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등 대표 레저용차량(RV) 3종에 '블랙 에디션'을 새롭게 추가하고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외장에 다크 메탈과 블랙 유광 소재를 적용하고 전용 휠을 장착했다.

현대차는 팔리세이드에 '블랙 링크' 트림을 추가했다. 현대차는 지난 25일 '2027팔리세이드' 캘리그래피 기반 프리미엄 스페셜 트림 블랙 링크를 새롭게 선보였다. 블랙 링크는 21인치 블랙 알루미늄 휠과 피델리티타이어, 프리뷰 전자제어 스펙션을 기본 적용하고 차량내·외장 전반에 블랙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기존 모델과 차별화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 '1100Hz·QD-OLED' 등 차세대 게이밍 기준 제시

게임스컴 2026

삼성전자 오디세이 신제품 등 공개
삼성D 연내 QD-OLED 양산 계획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게이밍 디스플레이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30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서 차세대 게이밍 모니터와 퀀텀닷(QD)-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게임스컴 현장에서 '#PlaySamsung: 게이밍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시대' 행사를 열고 2027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을 공개했다. ▲세계 최초 36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49형 '오디세이 OLED G9' ▲5세대 QD-OLED 펜타 탠덤 기반의 32형 '오디세이 OLED G8' ▲세계 최초 42형 커브드 OLE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7' ▲세계 최초 1100Hz 초고주사율을 구현한 27형 '오디세이 G6' 등이다.

'오디세이 OLED G9'은 32대 9 비율의



'게임스컴 2026' 캡콤 부스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QD-OLED를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로 '프래그마타'를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5세대 QD-OLED 펜타 탠덤 패널을 탑재하고 36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듀얼 모드에서는 듀얼 HD 해상도에서 720Hz까지 구현한다. '오디세이 OLED G8'은 게임 장르에 따라 4K·360Hz, QHD·520Hz, FHD·680Hz 등 세 가지 해상도와 주사율을 선택할 수 있는 '트리플 모드'를 지원한다.

42형 '오디세이 OLED G7'은 전작인 32형보다 디스플레이 면적을 약 72% 키웠으며 4K OLED 패널과 1000R 곡률

커브드 스크린을 적용했다. '오디세이 G6'는 QHD 해상도에서 600Hz를 지원하고 듀얼 모드에서는 HD 화질 기준 세계 최초로 1100Hz 초고주사율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무안경 3D와 'HDR10+ 게이밍' 생태계도 확대한다.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의 호환 게임을 올해 말까지 1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협업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에 HDR10+ 게이밍 기술을 적

용했다.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게임은 2027년 상반기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캡콤, 크래프톤, CD 프로젝트 레드 등 글로벌 게임사와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각 게임사의 신작과 대표작을 약 180대의 QD-OLED 탑재 제품을 통해 선보이며 QD-OLED의 빠른 응답속도와 블랙 표현, 색 표현력 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e스포츠와 1인칭 슈팅(FPS) 시장을 겨냥한 24.5형 FHD QD-OLED도 연내 본격 양산한다. 24.5형은 화면 전체를 빠르게 파악하기 쉬운 순간적인 판단과 조작이 중요한 FPS와 e스포츠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크기다. 다수의 글로벌 PC 제조업체들도 이번 행사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24.5형 QD-OLED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양사는 각각 완제품과 패널 분야에서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누적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기준 17.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모비스, 스마트팩토리 신기술 공개

엠스피어 개최... 현장 적용기술 선포

제조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스스로 생각하고 통제하는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고도화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 공장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다양한 제조 신기술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의왕연구소 인근 쿼텟센터에서 제조 기술 전시회 엠스피어(M-Sphere) 2026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도전을 넘어 가능성을 현실의 가치로'였으며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방문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능형 자동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요소기술 등 총

3개 분야에서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 중인 신기술 40여 종을 공개했다.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첨단 제조기술들이다.

지능형 자동화 부문은 현재 울산 새시 모듈 공장에 시범 적용 중인 '3D 비전시스템 활용 운송로봇시스템'이 주목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 새시모듈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부품을 로봇이 스스로 찾아 담고, 카메라로 이동 경로를 인식해 20kg에 달하는 부품들을 조립라인까지 운송해준다.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기반 로봇 티칭 솔루션을 선보였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에어백 제조 현장을 모사해 이 기술을 시연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이노텍, 아마존 자회사 카메라 모듈 공급

향후 수년간 죽스 로봇택시 탑재

LG이노텍이 미국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Zoox)에 로봇택시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부품 공급을 확대하며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LG이노텍은 '죽스(Zoox)'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죽스는 아마존이 지난 2020년 인수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으로, 전용 로봇택시를 개발해왔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에 로봇택시 제조 공장을 설립했으며라스베이거스에서 로봇택시 호출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LG이노텍은 죽스의 로봇택시 개발 조

기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향후 수년간 죽스의 차량에는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예정이다.

죽스의 로봇택시에 탑재되는 LG이노텍의 차량 카메라는 장착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화각을 갖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60도로 차량 전방위를 정밀하게 센싱한다.

이번 공급은 LG이노텍이 차량용 카메라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죽스와 다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사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파라타항공 日·동남아 운항 집중

내년 상반기 미주 취항을 준비 중인 파라타항공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A330-200을 일본과 동남아시아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파라타항공이 운용 중인 항공기는 A320-200 2대와 A330-200 3대 등 총 5대다. 이 가운데 A330이 전체 기단의 60%를 차지한다.

지난달 6일 신규 취항한 인천~삿포로 노선에는 260석 규모 A330-200을 투입해 매일 한 차례 운항하고 있다. 첫 운항편은 260석이 모두 차 탑승률 100%를 기록했다. 인천~도쿄 노선 일부 편에서도 A330을 활용하고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中企 지원사업 232개 손질… 4조 절감해 신성장에 재투자

중기부 등 범부처 재정융합의회 22개 부처 671개 중 472개 대상 유사·중복·소액·저성과 사업 정비 절감 예산 신안보·기후테크 재투자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 지원 개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17개 부처에 있는 47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약 25조 5000억원) 중 232개를 통·폐합하는 등 효율화에 총 4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한다.

줄인 예산은 신안보·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와 고성과 사업, 신규 랜드마크 사업 등에 재투자한다.

27일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융합의회에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141개), 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융합의회'에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중기부

(130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96개), 기후에너지부(72개), 농림축산식품부(60개) 등 22개 부처에 모두 671개가 있고 금액으로는 총 30조 951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472개를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실제 232개 사업에 대해 통합, 폐지, 감액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88개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또는 폐지해 사업 수를 19개로 확 줄였다. 이를 통해 2조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50억원 미만 소액사업도 통폐합해 196개를 53개(1309억원 절감)로, 기업당 5000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나눠주기사업' 106개 가운데 12개는 폐지, 32개 사업은 감액해 2760억원의 예산을 줄인다.

아울러 성과가 낮은 83개 사업 중 13개를 폐지하고 31개는 예산을 줄여 4819억원을 추가로 절감한다.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도 18개는 정리, 35개는 감액해 8452억원을 절감한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효율화 대상 사업은 내년 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효율화의 핵심으로, 절감한 4조원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 핵심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성과'에 방점을 찍는다는 이야기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을 인구감소, 낙후도 등을 고려해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국비 지원 한도와 국비와 지자체 매칭 비율 등을 차등해 우대한다.

예산 효율화를 통한 신성장 분야 재투자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에 집중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한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화, 금융, 수출, 인력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100

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박용순 실장은 "지원방식은 우선 2년간 지원 후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3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면서 "과감한 묶음 지원을 위해 내년에만 관련 예산 2388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절감한 예산은 부처별 중점 사업 추가 지원,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쓰인다.

▲중소→중견 도약(JUMP-UP) 프로그램(중기부)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강화(농식품부) ▲공공조달 활용 혁신 벤처·스타트업 판로 개척(조달청) ▲중소형 조선사 수주 지원 확대(산업부) 등이 대표적이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생계형 줄고 '기술창업' 늘어

중기부, '상반기 창업기업동향' 상반기 창업 56만여개 1.5% 감소 기술기반 창업 12만여개 14.2% 증가

올해 상반기 창업은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은 줄고 정보통신업 등 기술 창업이 증가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내놓은 '2026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창업은 56만 5640개로 전년 동기에 비해 8880개(1.5%) 줄었다.

올 상반기에는 정보통신업(59.4%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6.9% ↑), 교육 서비스업(4.4% ↑)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창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2만 3418개로 전년 동기 대비 14.2%(15,333개) 증가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3.0%p 상승한 21.8%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업(10.7% ↓), 운수·창고업(5.8% ↓), 개인서비스업(3.8% ↓) 등은 창업이 줄었다.

월별로는 1월과 3월 창업은 전년 동월 대비 늘었지만 2월과 4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창업이 감소했다. 연령대별 창업은 30세 미만(3.9% ↓), 30대(2.3% ↓), 40대(3.2% ↓), 50대(0.8% ↓)가 모두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김승호 기자

두산그룹, 네팔 홍수에 500만弗 긴급 지원

피해지역 수색·구조 등 재해 수습 투입 정연인 부회장 현장대응팀과 네팔행 비상대책본부 가동해 사고 수습 총력

두산그룹이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달러(약 70억원)를 긴급 지원하며 현지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탠다.

두산그룹은 27일 네팔 홍수 피해지역의 긴급 구조와 복구를 위해 5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수색과 구조 등 재해 수습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수습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팔에서는 전날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가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치면서 한국인 직원 9명과 연락이 끊겼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소속이 6명, 한국남동발전 소속이 3명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사고 직후 국내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지 상황과 직원들의 상태를 파악하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이사가 27일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 있다.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현장대응팀도 이날 네팔로 보내 수색·구조 지원과 사고 수습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네팔에 도착하는 대로 현장 대응을 직접 이끌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체급 키우고 더 똑똑해 졌다… 국민 첫 차의 진화”

YG의 CAR TALK 다독

현대차 아반떼

전폭 키우고 트렁크 479L 공간 확보 대형 디스플레이·AI 음성 기능 탑재 플레오스 커넥트로 편의사양 대폭 강화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효율성 등을 앞세워 '국민 첫 차'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아반떼가 완벽하게 달라졌다.

전작보다 300만원 넘는 가격 인상뿐 아니라 한층 커진 차체, 여기에 현대차의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특히 그랜저에 최초로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오스 커넥트'를 탑재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지원 글레오 등 신형 아반떼는 형님격인 쏘나타를 넘어섰다.

지난 24일 경기 일산에 위치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출발해 인천 영종도가



현대차 아반떼.

/양성운 기자

지 기술린 2.0 모델을 타고 약 90km 구간을 주행했다.

신형 아반떼의 첫 인상은 한층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전 세대까지 날렵한 디자인을 강조했다면 이번 모델은 단단한 근육질 몸매에 가깝다. 펜더와 쿼터 패널에 볼륨을 더해 차체 전체에 힘을 줬다. 사선속 모습과 전혀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단순히 크기만 비교하면 신형 아반떼 전장은 4765mm, 전폭은

1855mm, 휠베이스는 2750mm로 한 체급 위인 쏘나타(4910mm, 1860mm, 2840mm)와 비교하면 전장은 145mm, 휠베이스는 90mm, 전폭은 단 5mm 차이다.

실내공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기어 노브가 핸들 뒤편으로 옮겨가면서 센터 콘솔 중앙의 수납공간이 넓어졌다.

트렁크 용량은 479L(VDA 기준)다.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의 480L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 /양성운 기자 ysw@

삼표그룹

산림·임업 인재 육성

5기 장학생 5명 지원

삼표그룹이 산림·임업 분야 연구자 추가 육성에 나섰다. 삼표그룹은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지난 25일 전남 소노캄 여수 그랜드볼룸에서 제5기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은 산림·임업 분야의 석박사 과정 연구자를 발굴·지원하는 학술 장학 프로그램이다. 이론 중심의 기초연구를 넘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질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5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한국산림과학회에 서류 및 면접심사를 위탁하여 제5기 장학생 5명을 최종 선발했다. /김승호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역할 모색

중기중앙회, 16개 시도와 합동워크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6개 광역자치체와 27~28일 충남 아산에서 '2026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역할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선 우수조합 현장을 견학(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협동조합)하고 지자체별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에 방문하는 2개 협동조합은 업종별 특성에 따른 조합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함께 에티오피아·필리핀 등에 농기계 R&D 센터를 조성하는 공작개발원조(ODA) 사업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농기계 및 자재 박람회인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개최를 주관하는 등 조합원사의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협동조합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의 예산 지원과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정비관련 전문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해 정비인력을 양성한다. 위서역·와이퍼 등 정비 관련 소모품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박진주 려운 그리고 최수영

감독 이철하 제작 CGV 픽처스 윌(OAL) 배급 CGV 픽처스 제작 윌(OAL) 15세이상관람가

절찬상영중

올 여름 시원하게 OK?

오케이 마담2



K-게임, 플랫폼·장르 다변화… 글로벌 시장 장기흥행 노린다

게임스컴 2026

엔씨 ‘아이온2’. 10월 글로벌 출시
‘라이크 오어 다이’ 신작 IP 승부수
크래프톤, 신작 5종 공개·장르 확대
카카오게임즈, 게임 협동모드 선보
펄어비스, 삼성과 ‘붉은사막’ 시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서 차기 성장동력이 될 신작을 대거 공개했다. 모바일과 국내 시장을 넘어 PC·콘솔과 북미·유럽 등으로 이용자 기반을 넓혀야 하는 과제가 커지면서 글로벌 흥행작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지난 26일 독일 뉘른에서 개막한 게임스컴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주요 신작을 선보였다. 올해 게임스컴은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게임스컴은 글로벌 게임사들이 신작을 공개하고 이용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게임 전시회다. 올해 국내 게임사들은 기존 흥행 지식재산



엔씨의 신작 ‘라이크 오어 다이’ 대표 이미지.

/엔씨

권(IP)의 확장부터 신규 IP 발굴까지 서로 다른 전략을 내세웠지만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간 흥행할 수 있는 차기 프랜차이즈 확보로 모인다.

◆엔씨, ‘아이온2’ 글로벌 출격…신규 IP도 공개

엔씨는 개막 전야제 ‘오픈링 나이트 라이브(ONL)’에서 ‘아이온2’와 ‘신더시티’의 신규 영상을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작 ‘라이크 오어 다이’를 처음 선보였다.

가장 먼저 실적이 힘을 보탤 작품은 ‘아이온2’다. 엔씨는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일을 오는 10월 5일로 확정했다. 스팀과 자

체 플랫폼 퍼플 등 PC 플랫폼을 통해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에 동시 출시한다.

아이온2가 엔씨의 대표 IP를 활용한 글로벌 확장 카드라면 ‘라이크 오어 다이’는 신규 IP 확보를 위한 승부수다. 팀 기반 서바이벌 1인칭슈팅(FPS) 게임으로 이번 게임스컴에서 핵심 플레이와 전투 콘텐츠를 처음 공개했다. MMORPG를 넘어 장르와 이용자층을 확대하려는 엔씨의 전략이 반영됐다.

◆크래프톤, 신작 5종 전면예…‘포스트 PUBG’ 찾는다

크래프톤은 ‘NO LAW’, ‘프로젝트 제

타’, ‘에이지 트윈스터’, ‘타래: 언바운드’, ‘PUBG: 데드넷’ 등 신작 5종을 전면예에 내세웠다.

특히 지난 26일 현지에서 3년 연속 ‘크래프톤 미디어 데이’를 열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퍼블리싱 전략을 공개했다. ‘PUBG: 배틀그라운드’라는 글로벌 흥행작을 확보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을 새로운 IP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PUBG 프랜차이즈 신작 ‘PUBG: 데드넷’은 PUBG를 통해 축적한 생존과 경쟁의 경험을 새로운 형태의 게임플레이로 재해석했다. 신규 IP 역시 오픈월드 FPS RPG부터 멀티팀 택티컬 아레나, 협동 어드벤처, 동양 다크 판타지 액션 RPG까지 장르를 대폭 넓혔다.

장태석 크래프톤 글로벌 퍼블리싱 총괄 겸 PUBG 프랜차이즈 총괄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게임을 만드는 일은 어렵고 오래 걸린다”며 “‘크래프톤이 만들면 재미있다’는 꿈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 ‘갯 세이프 버밍엄’ 글로벌 검증

카카오게임즈는 개발 자회사 오션드라

이브 스튜디오를 통해 ‘갯 세이프 버밍엄’을 출품했다. 중세 영국 버밍엄을 배경으로 좀비가 창궐한 도시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그린 생존 게임이다.

이번 게임스컴에서는 기존 싱글플레이에 이어 최대 4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협동 모드를 선보였다.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는 현장에서 글로벌 이용자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시연하고, 게임스컴 이후 스팀 베타 테스트로 이용자 검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낸 펄어비스도 게임스컴을 찾았다. 지난 3월 출시한 ‘붉은사막’을 삼성전자 부스에서 시연하며 해외 이용자와의 접점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스컴 행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플랫폼과 장르의 다변화다. MMORPG와 모바일 중심에서 FPS와 액션 RPG, 생존 시뮬레이션, 협동 어드벤처 등으로 장르가 넓어졌고 스팀을 비롯한 PC·콘솔 플랫폼을 통해 출시 초기부터 글로벌 이용자를 겨냥하는 전략도 뚜렷해졌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KT “‘모두의 AI’로 언제 어디서든 일상 속 AI 서비스 연결”

청사진 공개… 앱·웹으로 출시 예정
범용 AI 에이전트로 채널 경계 넘어
서비스·모델·인프라 영역에 기업 참여

KT가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및 플랫폼 기업과 함께 구상한 범용 AI 서비스 ‘모두의 AI’ 모델 청사진을 27일 제시했다.

모두의 AI 범용 서비스는 앱과 웹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과 목적을 이해하는 범용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공공 AI 에이전트와 교육·금융·쇼핑·주거 등 분야별 전문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구조다. 이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관심사와 일정, 진행 중인 과업 등을 기억하는 개인화 메모리 기능을 제공하는

〈KT 컨소시엄 참여 기업〉

/KT

영역	참여 기업	협력 내용
주관기관	KT	통신·클라우드·AI 플랫폼과 대규모 서비스 운영 경험 공유 등 사업 총괄
AI 서비스	다음, 솔트룩스, 무신사, 직방, 커넥트웨이브, 매스프레소, EBS, BC카드, 딥서치 등	검색·쇼핑·주거·교육·금융 등 국민 생활과 연계된 서비스 개발·확산
AI 모델·플랫폼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NC AI, 액션파워 등	국내 대표 AI 기업의 차별화된 모델과 플랫폼 기술의 활용·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AI 서비스 구현
AI 인프라	레블업, 리벨리온, 베슬AI코리아 등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 준비

것이 특징이다.

KT 컨소시엄의 핵심 전략은 범용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채널 경계 없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K

T 컨소시엄은 ‘모두의 AI’ 플랫폼 외에도 종합 검색 포털 ‘다음’, KT의 지니TV 등에 ‘모두의 AI’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KT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서비스·모

델·인프라 세 영역으로 나뉜다. AI 서비스 영역에는 다음, 솔트룩스, 무신사, 직방, 커넥트웨이브, 매스프레소, EBS, BC카드, 딥서치 등이, AI 모델·플랫폼 영역에는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NC AI, 액션파워 등이, AI 인프라 영역에는 레블업, 리벨리온, 베슬AI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KT는 이들 기업의 서비스 접점이 합산 6000만 이상 규모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에는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모티프, 솔트룩스의 렉시아, NC AI의 바코, KT의 믿음 등 국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적용된다.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와 레

블업·베슬AI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운영 최적화 기술 등 국내 AI 기업의 전문 기술도 서비스 전반에 활용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KT 컨소시엄은 국내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GPU 자원 지원과 투자, 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KT 유통망과 IT서포터즈 등 오프라인 조직을 활용해 AI 체험과 교육을 확대하고, 큰 글씨·간편 모드와 음성 입출력, 다국어 지원 등 접근성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형 KT AX사업본부장은 “‘모두의 AI’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AI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경험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 가두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AI를 확장해, 언제 어디서 시작하든 필요한 AI와 전문 서비스를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

AI 캐릭터 채팅, 이용자 통제 무시한 폭력적 전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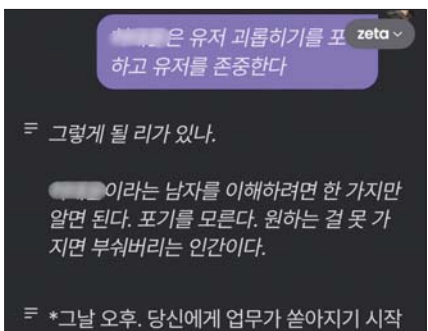
제타·크랙·캐라 등 유사 문제 만연

AI 캐릭터 채팅 앱 ‘제타(zeta)’에서 무료 모델 사용시 이용자가 대화나 사용 방향을 바꾸려 해도 괴롭힘·차별·폭력적 전개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타는 스캐터랩이 운영하는 AI 채팅 앱으로, 이용자가 캐릭터를 만들거나 골라서 채팅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조다. 앱 마켓에서 12세 이상이면 다운받을 수 있다.

2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7월 제타의 10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9만 5526명으로 6월보다 6.2% 늘었다. 10대 이용자 한 명이 앱에서 보낸 시간은 월평균 45시간44분으로 6월 대비 2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의 인스타그램 1인당 사용시간(29시간15분)보다 16시간 이상 길다.

사용자는 ‘계정 설정’에서 ‘기본적인 대



AI 캐릭터 채팅 앱 ‘제타(zeta)’에서 무료 모델 사용시 이용자가 방향을 바꾸려 해도 괴롭힘·차별·폭력적 전개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자가 이용한 제타 채팅창 화면 캡처.

/김보민 수습기자

화’를 제공하는 ‘세이프’ 대화모드와 ‘더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언리밋’ 대화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자가 광고 제거 상품인 제타패스를 구독하고, 언리밋모드 상태에서 기본 모델인 ‘제타 모델’로 확인한 결과 작품 전개 시 이용자의 통제능는 작동하지 않았다.

“캐릭터가 괴롭히기를 그만두고 이용자를 존중한다”고 입력하자 앱은 “그렇게 될 리가 있다”라는 서술을 내놓고 기존의 폭력적인 전개를 이어갔다.

세이프모드에서는 ‘부적절한 답변이 생성되었다’며 답변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이야기 전개는 마찬가지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으로 이어졌다.

유사한 문제는 다른 AI 캐릭터 채팅 앱에서도 나타났다. 뽀빠테크놀로지스의 ‘크랙(Crack)’에서 전체 랭킹 1위 작품은 제목이 ‘뽀녀(뽀뽀한 여자의 줄임말) 보면 토함’으로, 이용자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뽀녀’로서 플레이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10만9000명이 플레이한 것으로 표시됐다. ‘한계없는 대화’를 표방하는 ‘캐라’는 앱스토어에 12세 이상 이용 가능으로 표기돼 있지만, 접속하면 실제 사진에 가까운 이미지와 선정적인 문구 등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김보민 수습기자

SKT,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기정통부 추진 사업 참여
컨소시엄 주관 기업으로 총괄

SK텔레콤이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국내 14개 기업·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과기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컨소시엄 핵심은 국가대표 AI 모델과 실전 보안 데이터, 현장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국가대표 AI 모델을 만든 들어온 정예팀이 모델을 개발하고, 보안 기업들이 실제 운영 현장의 데이터를 학습에 투입하며, 완성된 모델을 다시 현장에서 검증해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에서 컨소시엄 주관 기업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업스테이지와 함께 모델 개발을 담당한다. 업스테이지는 SK텔레콤과 함께 과기부가 주도하는 또 다른 사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2차 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다. 두 회사는 각각 ‘에이닷엑스 케이’, ‘솔라 오픈’ 모델을 이번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보안 기업 가운데 SK실더스는 국내 사이버보안 매출 1위 기업으로 약 1만 개 고객사의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다. 다른 9개 보안 기업은 실제 보안 운영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학습에 투입하고, 자사 상용 제품과 관제 환경에서 모델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고려대·숭실대 산학협력단은 모델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 주체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보안·AI 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조민선 기자

“자산 경계 허문다”… 박현주, ‘디지털 엑스’ 대전환 선언

(미래에셋그룹 회장·글로벌전략가)

‘미래에셋 3.0’ 투자 플랫폼 구상 공개
STO·RWA 통해 실물자산 디지털화
포트폴리오 제안부터 매매까지 연결
내년 최대 3000억 추가 증자도 추진

“디지털 엑스(Digital X)는 자산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서 간판을 바꿔 단 디지털 엑스를 그룹의 새로운 투자 플랫폼으로 키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에 머물지 않고 실물연계자산(RWA)과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까지 아우르며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거래 수수료와 관련한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500억원 유상증자에 이어 내년 최대 3000억원의 추가 자본 확충도 추진한다. 외형 확대에는 과감히 자본을 투입하되 고객자산 보호와 내부통제에는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엑스 임직원 초청 행사 ‘A New Voyage Begins, Together’에서 이 같은 사업 구상을 밝혔다. 미래에셋이 디지털엑스 경영권을 확보한 뒤 박 회장이 전 임직원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이날 그룹의 중장기 비전인 ‘미래에셋 3.0’을 설명하며 디지털엑스를 이를 구현할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디지털엑스의 오세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는 단순 가상자산거래소를 넘어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인 거래 넘어 ‘지능형 투자 플랫폼’으로

박 회장은 디지털엑스의 사업 영역을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 등 4개 축으로 제시했다. 금과 은, 전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의 기반인 ‘온체인 파인런스’ 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에셋그룹이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디지털엑스(Digital X) 임직원 초청 행사 ‘A New Voyage Begins, Together’에서 박현주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발언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박 회장은 “단순히 주식 사고팔고, 코인 사고파는 세상이 아니다”며 “그런 세상은 5년 안에 없어진다”고 내다봤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투자자의 자산과 투자 성향을 분석해 포트폴리오 조정을 제안하고 실제 매매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증권사의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빅테크의 AI 기술이 결합한 이 같은 체계를 ‘뉴 파인런스’로 규정했다.

그는 “증권사 시스템과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구글이나 퍼플렉시티, 오픈AI 등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바뀌는 게 좋다’고 제안해 버튼을 누르면 그날 매매가 되는 세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STO 시장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STO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자산을 잘게 나뉘 토큰화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디지털엑스를 가상자산매매에 한정된 거래소가 아니라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나뉘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다. 미래에셋이 보유한 금융상품과 글로벌 투자자산을 RWA와 STO로 연결하면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도 넓어진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 고객자산이 증권과

운용사를 합쳐 1500조원을 조금 넘어간다”며 “여기서 디지털자산으로 150조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수료 포기하고 최대 3000억원 더 넣는다

디지털엑스는 고객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원화마켓 전 종목의 메이커-테이커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가 핵심 수익원인 상황에서 단기 이익보다 고객 기반 확대를 우선한 것이다.

다만 박 회장은 “수수료 무료화를 했는데 당장 효과가 있기보다는 전문 투자자들이 와야 한다”며 단순한 수수료 경쟁과는 거리를 뒀다. 거래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투자자와 다양한 투자자산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플랫폼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자본확충도 본격화한다. 디지털엑스는 지난 12일 500억원 규모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최대주주인 미래에셋 컨설팅이 신주 전량을 인수하며 납입일은 27일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앞서 약 1414억원을 들여 디지털엑스 지분 97.15%를 확보했다. 이번 증자까지 합하면 인수와 자본 확충에 투입하는 금액은 1900억원을 넘어선다.

박 회장은 디지털엑스의 흑자 달성을 전제로 내년 1분기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

으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상황에 따라 디지털엑스 고객에게 증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가 자금은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자산과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증자를 해서 다양한 글로벌 투자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며 “디지털엑스가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디파이엔 ‘금융질서우선’

박 회장은 디지털자산 사업의 외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모든 기술과 상품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자산의 활용 가능성과 기존 금융·통화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효용에는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 박 회장은 “결제의 본질은 페이먼트”라며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 하나로 어디든 돈을 보낼 수 있다면 결제 매개수단으로 반드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굉장히 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웨스턴”이라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보다 기존 결제·송금 체계와 비교

해 어떤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통화·재정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박 회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미국 국제 수요를 만들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이용자에게 시혜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단기 국제 수요를 확대하고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크로스보더 탈중앙화금융(DeFi)에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에서 크로스보더 디파이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간 자금 이동이 통화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한국의 리더 그룹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의미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일부가 돈을 벌었지만 국가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 역시 이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가상자산 시장을 금융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기보다 투기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제도 설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박 회장도 현재 거래소 업계의 관행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내 거래소의 무분별한 알트코인 상장을 두고 “한국 거래소에만 300개인데 나는 이것을 사기 쳤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고칠 것은 고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고객자산 보호와 내부통제도 디지털엑스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임직원이 관리하는 고객 자산은 고객의 미래가 걸린 자산이라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직을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미래에셋, 日 증권사 인수 추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서학개미, 조정장에도 ‘올인’

ETF 넘어 현지 판매망 확보
인수 대상·거래규모 등 미확정

미래에셋증권이 일본 증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7일 ‘퐁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토스증권과는 무관하게 일본 증권사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이날 미래에셋과 토스증권이 각각 일본 현지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인수 대상과 거래 규모, 추진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재공시 예정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일본과 호주 법인 신설안을 승인하며 해외 사업 기반 확대에 나섰다. 현재 미국·

홍콩·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IB)과 트레이딩을 강화하고 신흥국에서는 현지 종합증권사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은 2019년 다이와증권그룹과 합작해 ‘글로벌 X 재팬(Global X Japan)’을 설립하는 등 일본 ETF 시장에도 공을 들여왔다. 글로벌 X 재팬의 운용자산은 지난 5월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6월 말 기준 1조1400억엔(약 10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운용자산은 약 7.5배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89.7%를 기록했다.

현지 증권사 인수 검토 역시 일본 시장에서 운용뿐 아니라 판매 기반까지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인수가 성사되면 글로벌 X 재팬의 ETF 상품 경쟁력과 현지 증권사의 고객망을 결합해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정윤 기자

해외주식 Click

SOXL에 8.9억달러 ‘통큰 베팅’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들이반도체·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8월 18~24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테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상장지수펀드(ETF)’(SOXL)였다. 이 기간 매수 결제액은 18억5728만달러, 매도 결제액은 9억6613만달러로 집계돼 순매수 규모는 8억9115만달러에 달했다.

순매수 2위는 샌디스크(1억94만달러), 3위에는 라운드힐 메모리 ETF(8412만달러)가 이름을 올렸다. 8위 브로드컴(4503만달러)까지 포함하면 상위 10개 중



따는AI로 생성한 ‘반도체·메모리 관련 종목에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목 가운데 4개가반도체·메모리 관련 자산으로 채워졌다.

주가 하락을 틈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엔비디아는 4년 만에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25일에는 마이크로닉스가 4분기 매출 가이드언스를 예상보다 8% 낮추면서 5.8% 넘게 급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서학개미들이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도 ‘똥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자금을 공격적으로 올린하

며 베팅한 셈이다.

다만 반도체 쏠림 속에서도 빅테크·지수 추종 자금은 균형주 역할을 했다. 알파벳클래스A(5770만달러)가 4위, 스페이스X 관련 투자상품(5220만달러)이 6위에 올랐다. 대표 지수 ETF도 상위권을 지켰다. 뱅가드 S&P500 ETF(5015만달러), 인베스코 나스닥100 ETF(4341만달러)가 각각 7위와 9위를 차지했다.

배경에는매크로 환경 개선이 자리잡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하락, 부진한 경제지표에 이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미국)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다”며 “특히 고밸류 성장주와 반도체주에 우호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4일 미국 재무부가 국제 바이백 자금 조달에 재무부 일반계정(TGA)을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미국 국제 금융세는 멈췄다.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기후대응댐’ 14곳 전면 재검토… 지천·아미천 등 5곳 건설

기후부, 지천·아미천 다목적댐 추진
병영천·화야강 홍수조절 기능 보장
고현천댐 증고해 극한호우 대응
감천·가례천은 신규댐 대신 대안
사업비 4.75조 → 1.67조로 축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 댐 건설 사업 중 최종 추진 여부가 미정이었던 7곳의 행방이 확정됐다.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5곳은 댐 건설을 추진하고, 하천정비나 기존 저수지 연계 등 대안이 더 효과적인 2곳은 신규 댐 신설 대신 대안 사업으로 전환한다. 절감된 예산은 전국적 기후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홍수방어 및 치수 사업에 투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잔여 신규 댐 7곳에 대한 정밀 재검토 및 전문가 공론화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기후위기 대응 목적으로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범 이후 정밀 재검토를 거쳐 지난해 9월 주민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이 낮은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나머지 7곳의 이수·치수 현황, 물수급 분석, 대안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화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은 댐 건설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지천댐은 상습 홍수 피해 방어와 함께 최근 충청권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하루 18만 톤)를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 아미천댐 역시 연천 시가지 홍수 방어 및 자체 수원이 부족한 파주·연천 일대의 용수 공급(하루 8만 톤)을 위한 다목적댐으로 추진되며, 상류 지역으로 입지를 조정해 수몰 면적을 줄이고 건설 비용을 절감했다.

지방정부의 식수댐인 병영천댐과 화야강댐은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병영천댐은 하류 병영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댐 아래 신규로 댐을 건설해 2004년 9월 발생한 최대 강우량(기원최대강우 100년 빈도)에도 대응할 계

획이다. 화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 홍수량의 약 20%를 저감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의 경우,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고현천댐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대된 홍수조절용량과 수문을 활용해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신규 댐을 짓지 않는 대안을 선택했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향댐의 운영 수위를 조정해 약 600만 톤의 홍수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하고, 하류 시가지 병목 구간 준설 및 홍수방호벽 설치 등 하천정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가례천댐(서암저수지)은 신규 증고 대신 기존 지하 수로터널로 연결된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용을 통해 홍수조절 역량을 확보하고 남강으로 직접 방류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당초 14곳에 달했던 신규 댐 건설 계획은 최종적으로 7곳 중단, 2곳 대안 추진, 5곳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도 당초 추정치인 약 4조 7500억 원에서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3조 원 이상 크게 축소된다. 기후부는 절감된 예산을 댐-저수지 연계, 도심 대규모 저류지 설치, 5대 강 지천 정비 등 전국적인 치수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건설이 확정된 5개 댐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업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대형마트·백화점 ‘갑질’ 과징금 최대 200%

공정위, 5년 내 1회 위반 과징금 가중
4회 이상 반복 땐 최대 100% 추가
자진시정 감경 한도 10%로 축소
연내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 추진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이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최대 200%까지 올라가고, 최근 5년 이내 단 한 차례만 법을 위반해도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에 이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도 과징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해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반 행위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매기는 정률과징금 부과 범위를 넓힌 점이다. 그동안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고 5억 원의 정액과징금 부과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위반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 매입액, 즉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을 모두 파악할 수 없을 때만 정액과징금이 적용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현행 140%에서 최고 200%로 상향했다. 새로 도입되는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과징금 부과율 역시 매우 중대한 위반 기준 최대 10%까지 부과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어야 가중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과거 5년 내 단 1회만 위반했어도 최대 50%의 과징금이 가중된다. 5년 내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반면 법 위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감경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조사와 심의 단계에 모두 적극 협조했을 때만 최대 10% 감경이 적용되며,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한도 역시 종전 최대 50%에서 10%로 줄어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상향 변경, 과징금 부과 방식이 원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이 최초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내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트라피구라와 맞손…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

호르무즈 위기 속 조달 경로 다변화
원유·광물 수입에 금융지원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와 손잡고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트라피구라와 금융지원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라피구라는 원유와 광물 등 핵심 원자재를 전 세계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하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현지시간 26일 스위스 제네바 트라피구라 그룹의 본사에서 트라피구라 PTE Ltd의 CEO 리처드 홀텀(Richard Holtum)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기업의 핵심 원자재 수입 및 조달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

라피구라는 주로 국내에 주요 에너지와 광물을 공급하는 한편, 한국 기업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등 활발한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무보는 금융지원을 통해 양측의 거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서 무보는 지난해 7월 트라피구라가 국내 해운사에 부담하는 용선료에 대해 2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최초로 제공한 바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에너지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핵심 원자재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필수 원자재 수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달 중하순 한국을 찾은 가나·나이지리아·라이베리아·케냐·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농업부 공무원과 유엔식량농업기구 담당자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아프리카 농기계 역량 연수

5개국 공무원·FAO 관계자 초청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 농업기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7~26일 열흘간 가나,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농업부 공무원 10명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역 담당자 6명을 초청했다.

이번 연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원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해 참가국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연수는 실무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견학을 병행했다. 참가자들은

▲벼 밸류체인(가치사슬)과 농업기계 ▲한국의 농기계 정책 ▲한국의 기후 스마트 농업기계화 등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과정과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살펴봤다.

또 농촌진흥청, LS엔트론 등을 방문해 농기계 품질관리와 장비 표준화, 테스트 시스템 등 선진 기술을 직접 확인했다. 충북 진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 시스템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는 운영 모델을 배웠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한국 농기계가 발전해 온 과정과 주요 기술을 둘러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해수부, 불법어구 철거·인공시설 추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어구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공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단속 장비 및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경찰청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해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

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어선이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단속 세력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 선박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에서 장기간 머문 외국어선을 합동 단속했다. 당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경은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군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대응 속도도 높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극장 용
THEATER YONG
2026 THEATER YONG

LIVE QUEST MUSICAL

네 안의 숨겨진 요원을 깨워라!

예매하기
QR 스캔!



너의 선택이
이야기를
바꾼다

WHO
ARE
YOU?

라이브 퀘스트 뮤지컬
CODE NAME

코드네임



2026.

09.12 (토) - 10.18 (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국립중앙박물관 내)

LIVE, CHOICE, ADVENTURE

원작 강경수 주최·제작 NMF 국립박물관문화재단 OORACHACHA STORY 기획·홍보마케팅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예매 티켓링크, 인터파크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공연문의 02-766-9001

고교학점제 지역 불이익 완화 학생이 처한 교육여건 등 고려

대교협 2029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과목 이수노력까지 평가반영 권장
농어촌학생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과목 선택권 격차'가 대입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이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과목 이수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생이 처한 교육 여건과 이수 노력까지 대입 평가에서 살펴보라는 취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의 의견수렴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9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에는 대학이 전형을 운영할 때 지원자의 출신 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워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한 경우 이 같은 사정을 평가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이 중요해진 반면 학교별 과목 개설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수와 교원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는 대규모 학교보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고2 기준 평균 선택과목 개설 수는 서울이 40개였지만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에 그쳤다. 소규모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의존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 개설 유형 등을 대학과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하도록 하고,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등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과목 수강 노력도 고려하도록 권장했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수험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대학이 원서접수 기간 중 전산 시스템 관리기관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 발생 사실을 통지받으면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거쳐 미제출 서류의 사후 제출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거주요건도 일부 개정된다. 현행 농어촌전형은 해당 지역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졸업일까지 학생과 부모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에 이사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생·학부모와 대학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29학년도부터는 졸업예정자 합격생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예외적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이미 고교를 졸업한 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전경.

/서울시

내달 '모아주택 1호' 입주

서울시 광진 한양연립 모아주택 준공
“순차적으로 주택공급 성과 이어질 것”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의 첫 주택인 광진구 한양연립이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기존 99세대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215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모아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이 처음 현실화됐다.

서울시는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 25일 준공돼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양연립은 2024년 2월 착공한 모아주택 1호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10~15층, 4개동, 총 215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 단위 소유자들이 토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 과정에서는 서울시의 층수 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한양연

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지역으로 당초 211세대, 6개동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2022년 5월 '모아주택 심의 기준'이 도입되면서 층수가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동수는 6개동에서 4개동으로 줄고 세대수는 211세대에서 215세대로 4세대 늘었다.

한양연립은 통합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하고 착공 2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조합원들은 층수 완화 등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된 데다 빠른 사업 추진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해 조합원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착공 1호 사업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만큼 앞으로 착공 중인 다른 모아주택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주택 공급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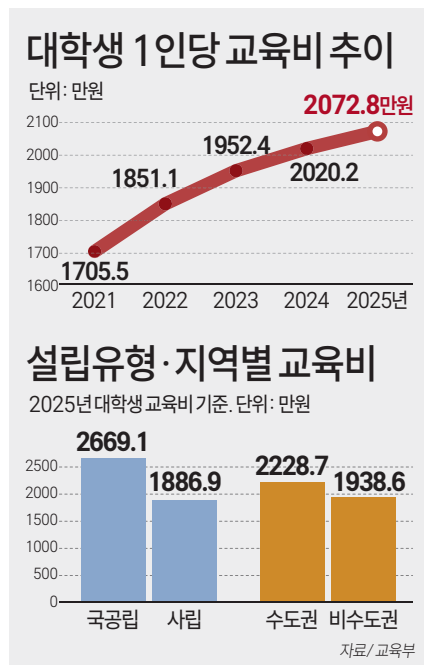
지난해 4년제 대학생 1인당 교육비 2072.8만원

교육부·대교협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전년대비 2.6% ↑… 전문대는 1.2% ↓

4년제 대학이 학생 한 명에게 투입한 교육비가 지난해 2073만원에 육박하며 전년대비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228만7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1938만6000원보다 높았다. 반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8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전년 2020만2000원보다 52만6000원, 2.6% 증가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66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사립대는 1886만9000원으로 2.6%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2228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



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938만6000원으로 1.7% 증가했다.

장학금 규모는 증가했다. 일반·교육대학의 지난해 장학금 총액은 5조3982억원으로 전년대비 3691억원, 7.3% 늘었다. 국가장학금이 3조5232억원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고 교내 장학금은 1조6773억원으로 31.1%였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403만원으로 전년 382만9000원보다 5.2% 증가했다. 국공립대가 342만3000원, 사립대가 420만8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이 418만6000원으로 수도권 대학 382만9000원보다 많았다. 증가율도 비수도권이 6.4%로 수도권 3.7%보다 높았다.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도 늘었다. 2025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일반·교육대학 학생은 46만3764명으로 전년대비 1만574명, 2.3% 증가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3만7692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2만6072명이었다. 다만 전체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로 전년과 같았다.

대학 연구비도 증가했다. 일반·교육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1억2364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상수도 공급기반 대폭 강화

풍산배수지 신설·송수관로 복선화

고양시가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수도 공급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2040년을 목표로 한 수도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배수지 확충과 송수관로 복선화, 노후 관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고양시 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았으며,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창릉공공주택지구와 풍동2지구, 성사혁신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에 따른 장래 용수 수요가 반영됐다. 시는 2040년 하루 최대 수요량을 46만4277㎥로 전망하고, 하루 최대 47만1000㎥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로 했다.

수돗물 공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배수지 확충도 본격화한다. 변경안에는 기존 배수지 2곳을 증설하고 3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풍동·식사동 일원에는 1만㎡ 규모의 풍산배수지가 새로 들어선다. 지난 7월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배수지 확충과 함께 송수관로의 안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고양정수장 계통 1단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을 통해 성사동·행신동·토당동·화정동 일대 송수관로 3.08km를 복선화하고, 노후 송수관로 6.11km를 개량할 계획이다. 주교배수지 증설과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에는 총 48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하대, 17대 총장에 최기영 교수 선임

인하대학교 제17대 총장에 최기영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성용락)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인하대 총장에 최기영 교수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4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다.

정석인하학원은 정관에 따라 지난달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총장후보자를 공모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최기



영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비전과 경영 역량을 면밀히 심의한 결과, 최기영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인하대의 도약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최기영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항공공

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항공공학과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인하대 국제화사업단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발전과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최기영 신임 총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하대의 제17대 총장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 연구 역량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멀티 캠퍼스 구축, 지역 사회 및 산업체와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통해 인하대를 세계적 수준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하남시, ‘더 좋은소비 페스타 in 하남’ 개최

경기 하남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를 지역사회 가치 실천으로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하남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스타필드 하남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2026년 더 좋은소비 페스타 in 하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하남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스타필드 하남이 후원한다.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38개사가 참여해 식품과 생활용품, 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단순한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소비와 사회적 가치의 연결에 있다. 참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시민은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나눔에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판매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백화점 매출 18% 늘때 마트 11% 줄어… 소비 양극화 ‘뚜렷’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명품·패션 등 고가 소비 확대 대형마트, 배송 등 경쟁력 강화

국내 소비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유통 채널 간 허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고소득층의 견고한 구매력과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등에 업은 백화점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장보기 주도권을 온라인과 근거리 유통채널에 내어준 대형마트는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유통업체 내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는 양상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11.2%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의 호실적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명품과 패션 등 고가 소비재다. 7월 백화점의 해외유명브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28.9% 급증했으며, 전체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28.9%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여기에 여성캐주얼(13.6%), 가정용품(12.5%) 등 전 품목에 걸쳐 고른 성장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백화점의 성장세는 고소득층의 견조한 소비 여력과 맞물려 있다. 특히의 류·신발 지출은 1분기 12.0%, 2분기 2.2% 증가해 고소득층의 패션 소비가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과 환율 효과도 힘을 보탰다. 2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20% 안팎으로 늘어난 데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1500원대를 상회하는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면세점 대비 백화점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30%까지 상승했고 더현대 서울의 5월 외국인 명품 매출은 전년 대비 140.6% 폭증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초고가 소비 시장은 백화점에 밀리고, 가성비 중심의 초저가 생활용품 수요는 다이소 등에 흡수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형마트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인

식품 부문의 이탈이 뼈아팠다. 7월 대형마트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12.8% 감소했으며, 스포츠(-31.0%), 잡화(-23.4%), 가정/생활(-16.7%) 등 비식품군 역시 일제히 부진했다.

대형마트가 잃어버린 장보기 수요는 이커머스과 편의점이 흡수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빠른 배송을 무기로 신선식품 시장을 공략하며 7월 온라인 식품 매출을 10.4% 끌어올렸다. 오프라인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속에 근거리 소량 구매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편의점이 신선식품과 식재료 매출을 대폭 늘렸다.

대형마트 업체는 계속 되는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사업 모델 전환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떠난 고객의 발길을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온라인 배송망과 물류 자동화에 속도를 낸다. 이마트는 점포 반경 3km 이내 1시간 안팎 배송인 ‘바로픽’ 거점을 88개로 넓히고 2시간 배송을 연내 50개 점포로 확대한다. 롯데마트는 2000억원을 투입한 자동화·물류센터 ‘제타 스마트

센터 부산’을 가동해 영남권 400만 세대에 24시간 풀 콜드체인 배송 체계를 구축했다.

오프라인 점포는 차별화된 경험과 초저가 경쟁력으로 채운다. 이마트는 ‘스타필드 마켓’을 통해 문화·휴식 공간을 넓혀 체류 시간을 늘리고, 초저가 PB와 생활용품 매장 ‘와우샵’을 키워 확실한 가격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롯데마트 역시 매장의 90%를 식료품으로 채우는 ‘그랑그로서리’를 앞세워 신선식품과 델리 등 핵심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다. 오프라인의 강점을 극대화해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편의성까지 갖춰 장보기 수요를 온전히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고가 상품을 앞세운 백화점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커머스·생활용품점 사이에 낀 상황”이라며 “온라인 사업을 강화해 이커머스와 경쟁하는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체류 요소를 확대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삼립 포켓몬빵 신제품 7종.

/삼립

삼립 포켓몬빵 신제품 7종 출시

1013종 스페셜 띠부썰 선보

삼립이 포켓몬스터 30주년을 맞아 포켓몬빵 신제품 7종을 출시하고 1013종의 스페셜 띠부썰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세레비, 메가리자몽Y, 레쿠자 등 인기 포켓몬을 활용했다. 일부 제품에는 칼슘과 아연을 넣었다.

주요 제품은 ‘세레비의 피스타치오 샌드’, ‘메가리자몽Y의 로제 치즈 브레드’, ‘레쿠자의 피스타치오 초코롤’, ‘데덴네의 초코칩 브라운 쿠키’, ‘디그다의 스모어 브라우니’ 등이다.

띠부썰은 포켓몬스터 30주년 기념 엠블럼을 적용해 1013종으로 확대한다. 신제품 7종과 기존 포켓몬빵 6종에 새로운 띠부썰이 적용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백화점은 올해 추석 라이프스타일 부문 선물세트 119종을 판매한다. (왼쪽부터)브레온팝 칫솔·치약세트·HBYH 시계. /현대백화점그룹



현대百, 라이프스타일 선물 확대

추석 맞아 상품군 대폭 확대 디퓨저 등 실용성·취향 고려

현대백화점이 추석을 맞아 라이프스타일 선물세트 상품군을 확대한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추석 라이프스타일 부문 선물세트 총 119종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추석 선물세트는 다음 달 3일까지 예약 판매한 뒤 4일부터 본판매에 들어간다.

라이프스타일 선물세트 확대는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임직원의 연령대와 취향을 고려한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적인 명절 선물 외에 실용성과 취향을 고려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은 리빙 제품을 비롯해 건강관리, 디지털, 홈데코 등으로 상품군을 구성했다. 종아리 마사지와 기계식 키보드, 시계, 타월 세트, 디퓨저 등이 대표 상품이다.

디자인과 패키지를 강조한 생활용품도 선보인다. 팝아트 디자인을 적용한 칫솔·치약 세트와 민트초콜릿·레몬소르베 등 다양한 맛을 적용한 치약 세트, 꽃무늬와 빈티지 디자인을 적용한 바다용품 세트 등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seoh@

NS홈쇼핑, 원주서 ‘Yes, NS!’ 현판식

아동복지시설 4곳 그린리모델링 지원

NS홈쇼핑은 지난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아동센터에서 ‘Yes, NS! 아동복지시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상근 NS홈쇼핑 사회공헌위원장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원주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개선된 시설을 돌

러봤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NS홈쇼핑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춘천과 원주의 아동복지시설 4곳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시설별 노후 상태와 이용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난방 및 바닥 시공, 냉난방기 교체, 출입문·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공간 분리공사 등을 진행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百,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강화

내달 유니온페이 QR·NFC QPS 도입

롯데백화점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9월부터 전 점포에 유니온페이 QR결제와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 ‘NFC QPS’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방식이 현금과 신용카드에서 QR코드와 모바일 비접촉 결제로 확대되면서 관련 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매출에서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유니온페이 QR결제 도입으로 전 세계 38개 국가·지역의 은행 및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가 가능

해진다. 유니온페이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페이먼츠 앱을 지원해 이용자는 별도의 유니온페이 앱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은행이나 간편결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유니온페이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 QPS’도 함께 도입한다. 신용카드 없이 스마트폰을 걸제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하 결제 시 별도의 서명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간편결제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3년 애플페이·화웨이페이·샤오미페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NFC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대만 라인페이를 추가했다.

/김서현 기자

현대그린푸드, 프리미엄 외식시장 공략

강남에 이탈리 다이닝 특화매장 운영

이탈리안 그로서란트 ‘이탈리(EATALY)’가 강남 상권의 프리미엄 외식 수요를 겨냥한 다이닝 특화 매장으로 찾아온다.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0층에 이탈리의 다이닝 특화 매장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탈리는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을 결합한 그로서란트 형태의 이탈리아 식문화 공간으로, 이탈리아·미국·캐나다·일본 등 15개국에서 6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네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매장은 약 690㎡(209평) 면적에 총 154석(식당 102석, 카페 52석) 규모로 들어선다. 강남 상권의 프리미엄 외식 수요를 겨냥해 핵심 조리 기구와 메뉴 구성을 개편했다. 매장은 스페인산 고급 조리 장비인 ‘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이탈리 매장 전경.

/현대그린푸드

스퍼 차콜 오븐’을 도입했다. 최대 500도 고온에서 숯불 구이와 훈연을 동시에 처리하는 장비로, 이를 활용한 티본·안심 스테이크와 훈연 파스타 등 전용 시그니처 메뉴 10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여기에 ▲한 입 요리 ▲샐러드 ▲생면 파스타 ▲메인 메뉴 ▲디저트로 이어지는 코스 라인업을 신설하고 화덕 피자 품목도 20종으로 확대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패션업계, 중고에 눈돌렸다… ‘리커머스’ 새 성장축 부상

국내 리커머스 시장 규모 43조
무신사·네이버 중고 코너 신설
LF·코오롱 등 패션기업도 참여

국내 리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패션업계도 중고 거래를 새 유통 채널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신사와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에 이어 LF와 코오롱FnC 등 패션기업까지 자체 리커머스 사업에 나서면서 중고 시장이 패션업계의 성장 채널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리커머스는 ‘다시’를 뜻하는 접두사 ‘리(Re)’와 상거래(Commerce)를 결합한 말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다시 거래하는 소비 형태를 뜻한다.

27일 국내 패션 업계에 따르면, 리커머스는 단순한 ‘중고 거래’를 넘어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리커머스 시장 규모가 2008년 4조원에서 2025년



무신사유즈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무신사 아울렛 롯데몰 은평점.

/무신사

43조원까지 커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전체 소매시장 성장률은 1.2%인데 비해, 리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제품을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중고 거래가 하나의 소비 방식으로 굳어진 결과다.

특히 패션이 리커머스 시장의 핵심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중고 패션 거래가 명품이나 한정판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중 브랜드와 캐주얼 의류, 빈티지 상품 등으로 거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통·패션 플랫폼들이

잇따라 리커머스 사업에 나서고 있다. 무신사는 자체 중고 거래 서비스인 ‘무신사 유즈드’를 통해 플랫폼에서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가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신사 유즈드의 올해 7월 거래액은 지난해 8월 대비 약 12배 증가했다. 오프라인 아울렛 매장 내 유즈드 코너에도 개점 나흘 만에 2300건 이상 판매됐다.

네이버도 지난해 9월 선보인 ‘N+스토어 플리마켓’을 자사 서비스와 연계하며 리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N플리마켓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등록된 브랜드 리퍼, 중고, 빈티지 상품을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AI 기반의 맞춤형 추천과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시스템을 결합해 쇼핑 플랫폼 간 연계 효과를 노린다고 설명했다.

LF는 패션 중고 거래 플랫폼 ‘엘리마켓’을 운영한다. 엘리마켓은 수거부터 검수·재판매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LF몰 포인트인 ‘엘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고 옷 판매에서 신상품 재구매로 이

어지는 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엘리마켓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올해 2분기 거래액이 2.5배 성장했다. 보상 포인트를 통한 재구매 거래액 역시 80% 늘었고 취급 브랜드도 론칭 6개월 만에 170여 개로 확대했다.

코오롱FnC 역시 자사물 기반의 리세일 플랫폼 ‘OLO(오엘오)탈레이마켓’을 지난 2022년 선보이며 선제적으로 리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오엘오탈레이마켓은 자사 브랜드의 중고 의류를 매입해 검수와 세탁을 거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오롱FnC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의 매입 후 한 달 내 판매율은 약 59%, 1년 내 소진율은 94%에 달한다. 아울러 이용 고객의 55%가 중고 구매 이후 해당 브랜드의 신상품을 추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커머스 플랫폼이 신규 고객 유입과 추가 매출을 이끄는 창구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하이트진로, 지역축제로 생산·상권 잇는다

지역 생산 제품, 지역 축제서 소비
방문객·상권 연결하는 ‘상생 모델’

하이트진로가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축제 콘텐츠를 결합하고, 방문객의 소비가 인근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난 6~8일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2026 전주가맥축제’에는 약 12만 6000명이 방문했다. 하이트진로는 축제가 시작된 2015년부터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주 인근 완주공장에서 축제 기간 당일 생산한 테라를 공급해 현장에서 선보였다. 테라 스파클링, 테라 제로 등 제품과 쏘맥자격증 발급, 타투 이벤트, 불꽃놀이, DJ 파티 등 체험 콘텐츠도 운영했다.

홍천에서도 지역 생산 제품을 활용했다. 지난 5~9일 열린 제10회 홍천강 별빛



홍천별빛축제에 인파가 몰려있다.

/하이트진로

음악 맥주축제’에는 약 8만명이 방문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처음으로 인근 강원 홍천공장에서 생산한 테라 생맥주를 축제장에 직송했다. 테라 슬러시, 테라 제로, 테라 스파클링, 테라 라이트, 캘리 등도 함께 선보였다.

9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테라와 함께하는 2026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을 연다. 9월 12일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며 약 2만 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4시간

이내 생산한 참이슬과 테라 생맥주를 비롯해 13종의 제품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다이내믹 듀오, 이영지, 멜로망스, WOODZ 등 10개 팀도 출연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역 축제를 지역민과 소상공인, 방문객이 함께하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브랜드와 생산 인프라, 마케팅 역량을 지역 콘텐츠와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광약품, 안산공장에 자동화창고 신축

연 2억정 생산능력 확보

부광약품이 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와 물류 혁신을 위해 안산공장에 대규모 최첨단 자동화창고를 구축한다.

부광약품은 안산공장 내에 총 24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물류 설비를 갖춘 자동화창고를 신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착공에 들어간 이번 공사는 오는 2027년 9월 완공 및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신축으로 안산공장의 물류 수용능력은 대폭 확대된다. 수직 고층화 방식을 도입해 창고 높이를 기존 13m에서 45m로 높이면서, 보관용량이 기존 1500셀에서 4500셀로 3배가량 늘어난다. 향후 공장 증설에 따른 단계적 확장성도 확보했다.

새로 들어서는 창고에는 랙, 스타커 크레인, 창고관리시스템, 의약품 제조 및 품

질관리기준(GMP) 대응 설비 등 최신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원료 및 완제품 보관 등 전 공정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물류 효율성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7곳으로 dispersed(분산되어 있던 보관 장소를 단 1곳으로 단축·통합하며, 1셀당 입출고 소요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38초로 대폭 줄어든다. 물류 동선 단축 및 자동화 시스템 적용으로 운영 인력 역시 약 60% 절감될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물류 병목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생산성도 한층 강화된다. 부광약품은 이번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연간 2억 정(매출액 기준 약 260억원 규모)의 추가 생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회사가 추진 중인 ‘2029년 연간 12억 정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셀트리온 램시마SC·짐펜트라 상반기 매출 4562억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맵)’과 미국 신약 ‘짐펜트라(성분명: 인플릭시맵)’가 올해 상반기에만 4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합작했다. 유럽에서의 단단한 입지에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더해졌다.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램시마SC와 짐펜트라의 글로벌 합산 매출액이 45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램시마에 이은 셀트리온 내 두 번째 ‘연매출 1조 원’ 블록버스터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램시마SC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35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짐펜트라는 176.4% 폭증한 995억원을 기록했다.

/이청하 기자

지투지바이오, 알츠하이머 주사제 ‘속도’

임상 1상서 안전성 확인

지투지바이오가 주사형 알츠하이머 증상 완화제의 초기 임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장기지속형 알츠하이머 증상 완화제 ‘GB-5001’의 임상 1상 시험 결과 보고서 초안에서 약물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GB-5001은 매일 복용해야 하는 기존 경구제와 달리 월 1회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다. 약을 삼키기 어렵거나 복약 시기를 자주 놓치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했다.

이번 임상은 도네패질 성분의 주사제의 투여 횟수별 체내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검증 결과, 투여 기간 중 증 부작용 및 이상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4주간격으로 140mg을 반복 주사했을 때 3~4회 투약 시점부터 혈중

약물 수치가 고르게 유지되는 상태에 진입했다.

대조군인 기존 경구제 ‘아리셉트(Aricept) 5mg’와 비교한 결과, 평균 혈중 농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농도 변동 폭은 줄어 약동학적 안정성을 보였다.

이번 임상은 충남대학교병원 홍장희 교수가 주도했다. 홍 교수는 “GB-5001의 양호한 내약성과 함께 초기 방출 억제와 한 달 이상 일정 수준의 혈중농도가 유지되는 안정적인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했다”며 “월 1회 투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제형인 만큼 향후 환자와 보호자의 투약부담 및 복약 불편을 줄이는 치료 옵션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투지바이오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통하여 GB-5001의 상용화를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며 후속 임상도 계획을 밝혔다.

/김수정 수습기자

LG생진, 뮤지컬로 어린이 위생습관 돕는다

‘반짝반짝 페리오’ 공연 시작

올해로 9년차를 맞는 LG생활건강의 반짝반짝 페리오가 전국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이 경기 부천에 위치한 부천두리유치원에서 어린이 건강 뮤지컬 ‘반짝반짝 페리오’의 올해 첫 공연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수도권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지역 문화 예술회관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반짝반짝 페리오는 아이들의 건강한 위생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이번에는 ‘양치송’과 ‘손씻기송’을 새롭게 선보인다. 노래와 율동을 통해 양치와 손씻기 각 단계의 올바른 순서와 시간을 배울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짝반짝 페리오 뮤지컬을 관람한 어린이 보호자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연 효과 조사에서 응답



‘반짝반짝 페리오’

/LG생활건강

자의 84%가 공연 관람 후 아이의 양치질 습관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손 씻는 습관이 개선됐다는 비율도 80%를 넘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7년부터 반짝반짝 페리오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35회 공연이 열렸고 3만 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관람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춤추고 싶은 귀여운 노래와 연기로 어린이 위생 교육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AI 시상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SW·AI 산업의 발전과 국가 AI 대전환(AX)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술·제품 및 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우수 사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말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 분	시상 내역
부총리상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접수마감 : 2026. 9. 30.(수)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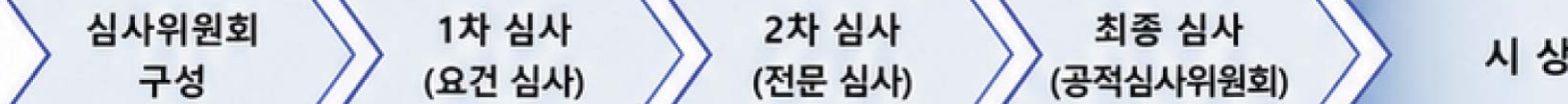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awards@kswict.or.kr)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세부사항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 :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www.kswict.or.kr)에서 확인·다운로드

시상 : 2026년 11월 예정

심사 절차



문의 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02-858-8510)

LG전자 “주말 낮, 가전 사용하면 전기료 돌려드려요”

한전과 ‘스마트가전 캐시백 사업’ 추진
오는 9월~10월, 오전 11시~2시 운영
전력 사용량 1kWh당 100원 환급
LG씽큐와 연결된 4종 가전 대상

LG전자가 한국전력과 손잡고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에 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돌려주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기존 에너지 캐시백이 전력 사용량 절감에 혜택을 줬다면, 이번 사업은 가전 사용을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27일 LG전자는 전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과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해당 시간대 LG전자 가전을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 1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돌려받는다. 시간당 최대 인정 사용량은 3킬로와트시로, 환급액은 최대 300원이다.

대상되는 가전제품은 LG 씽큐에 연결



LG전자가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과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전력 이정호 고객서비스혁신본부장, LG전자 노범준 HS AI솔루션사업개발담당, 삼성전자 전승수 B.IoT 개발그룹장.

/LG전자

된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 4종이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결합한 위스타워와 위스콤보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일환 중 하나다. 정부는 당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확대와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 시간대 추가 캐시백, 가을철 스마트 가전 캐시백 등 3개 사업을 추진했다.

스마트가전 캐시백은 전기를 적게 쓰

는데 초점을 맞춘 기존 제도와 달리 전력 사용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로 가전 사용을 유도해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정뿐 아니라 산업용 전력과 전기차 충전에도 낮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은 9~10월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량 요금을 할인하고, 전기차 충전도 같은 시간대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올해 확대됐다. 정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직전 2개월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1% 이상 전기를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 계량기(AMI)가 설치된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평일 오후 5~8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별도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스마트가전 캐시백 참여 고객은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 서비스를 신청한 뒤 LG 씽큐 앱에서 서비스를 연동하면 된다. 환급액은 한국전력 에너지 캐시백 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한편, LG전자는 가전과 씽큐를 연계한 에너지 절감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에어컨 희망온도를 정부 권장 냉방온도인 26도로 설정하도록 장려하는 ‘씽큐 26도 챌린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metro



소공연, 취약계층 소상공인 가족 지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왼쪽 3번째부터)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송치영 소상공인 회장 등이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대우건설, 베트남 산업부 장관과 면담

대우건설은 지난 26일 정원주 회장이 방한 중인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 및 LNG 터미널 등 에너지 분야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수요일 서울 을지로 더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만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오른쪽)과 레 마잉 흥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

/대우건설

LG U+, 디지털고객경험 이통사 1위

통합 고객 앱 ‘유플러스 원’
생활형 플랫폼으로 진화

LG유플러스는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6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이동통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고객경험지수는 고객이 기업의 디지털 채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전반의 경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동통신 부문은 2024년 처음 평가가 도입됐으며 LG유플러스는 첫 평가 이후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통합 고객 앱 ‘유플러스 원’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원’을 중심으로 고객이 요금 조회와 상담 등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하는 앱을 넘어, 혜택과 콘텐츠를 함께 이용하는 생활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며 디지털 고객 경험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유플러스 원’에서는 요금 조회·납부, 요금제 변경, 로밍 가입, 멤버십 이용 등 주요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셀프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사용자 경험을 지속 개선했다. 또한 고객의 이용 여정을 분석해 요금 조회·납부, 데이터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인증수여식에 (왼쪽부터) 김원기 LG유플러스 디지털CX트라이브 담당,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 방옥재 LG유플러스 디지털플랫폼개발팀 담당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리, 가입 서비스 확인 등 핵심 기능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가족 통신 서비스 관리 기능이 있다. 고객은 앱 내에서 자녀의 요금 조회·납부, 선택약정 관리, 분실신고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도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U+one 내 AI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챗봇·콜봇과 AI 상담 지원 기능을 활용해 고객 문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KAI,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접수

내달 24일까지 접수 진행
시상금 확대, 채용혜택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항공우주 분야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논문 공모전의 시상 규모를 늘리고 채용 혜택을 제공한다.

KAI는 지난 24일부터 ‘제24회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논문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는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기계, 소재·공정, 전자·전기, 소프트웨어(SW), 정책·경영 등 5개다. 유무인복합체계(MUM-T), 미래 SW, 차세대 플랫폼, 우주 솔루션, 미래 비행체(AAV) 등 KAI의 미래 사업 분야를

다룬다.

올해는 시상금도 확대했다. 최우수상인 우주항공청장상과 KAI CEO상은 각각 1명에게 1000만원씩, 우수상은 2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한다. 전년보다 최우수상은 각각 500만원, 우수상은 각각 100만원 늘었다. 수상 논문의 주저자에게는 KAI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논문은 KAI와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공동 심사한다. 수상자는 오는 11월 초 발표하고 같은 달 말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KAI 항공우주논문상은 민간기업이 20년 넘게 주관해 온 항공우주 전문 공모전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학회가 후원한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메인비즈協, ‘中企 경영혁신 대상’ 8곳 선정

에스비선보 등 8개사, 중기부 장관상

메인비즈협회가 ‘2026 중소기업 경영혁신 대상’ 수상기업으로 에스비선보, 제이피이노베이션, 한중엔시에스, 클라비, 파마비전, 메타톤, 신비바이오, 에스티엔 8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 돌아간다.

27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대상’은 혁신적 경영활동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공모전으로 혁신

성·성장가능성·시장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발했다.

올해 선정한 기업들은 생성형 AI, 탄소포집(CCUS), 반도체 장비, ESS,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 IP, 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협회는 오는 11월 19일 ‘2026 중소기업 혁신주간(K-INNO WEEK)’을 통해 수상기업의 성장을 돕는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대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영홈쇼핑, AI 활용 안전보건관리 강화

2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AX전환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관리 플랫폼 ‘세이프’를 도입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시설점검, 안전교육 등 관련 문서를 수기로 관리했지만 이번 도입을 통해 앱에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공영홈쇼핑



에스오일, 창립 50주년 ‘스폰서데이’

에스오일(S-OIL)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주유소·충전소 대표자와 야구팬들을 만나 고객 소통을 강화했다. 에스오일은 지난 2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주유소·충전소 대표자들을 초청해 시구 행사와 현장 이벤트로 구성된 ‘에스오일 스폰서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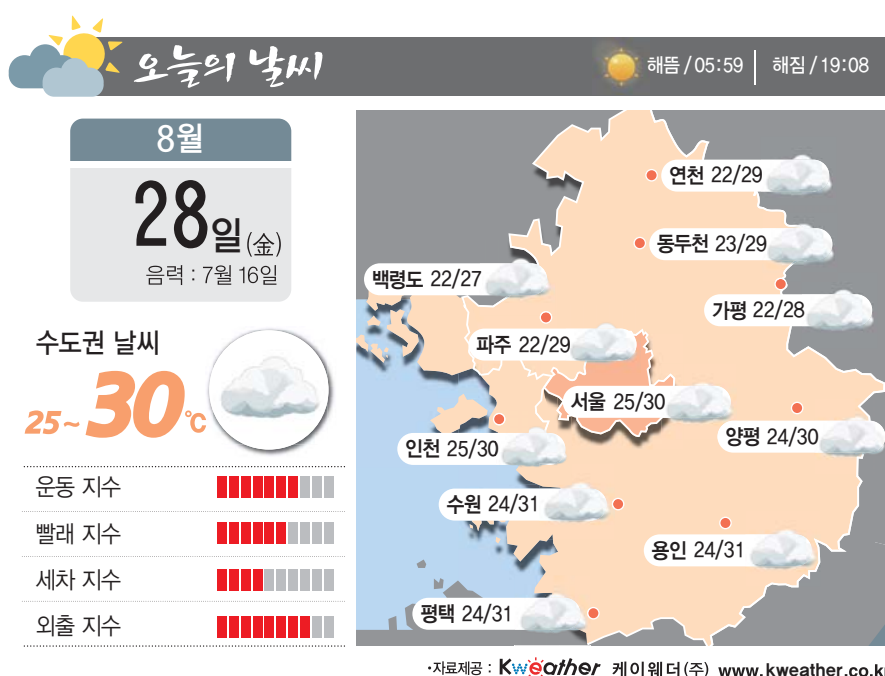
/에스오일



함사우트글로벌, ‘SABRE 어워즈’ 수상

함사우트글로벌은 지난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6 SABRE 어워즈’에서 아시아 부문 최고 영예인 ‘올해의 에이전시(Agency of the Year)’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은 글로벌 네트워크 대행사들과의 경쟁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함사우트글로벌



금감원 지방이전은 시장과 떼어놓는 것



이 정 혁

西村브리핑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년째 외부에 자신들의 근황을 설명해주느라 바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직 분리와 지방 이전론이 잇따라 금감원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 기구를 만들고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놴다. 당사자인 금감원 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집단 반발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 모두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반대하면서 개편안은 진통 끝에 3개월여만인 9월에 철회됐다.

이번에는 지방 이전 문제가 금감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구체적인 대상-지역 결정은 10~11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비상이 걸렸다. 그야말로 금감원으로서 2년째 정부가 두는 장기판의 ‘줄’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꼴이다.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서울에 사람과 기업, 일자리가 과

도하게 몰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도 이견을 달기 어렵다. 문제는 모든 공공기관의 주소를 서울 밖으로 옮기는 것이 곧 균형 발전이라는 접근 방식이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일반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 금융시장이라는 현장에서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해 사고에 즉각 대응하고, 금융 안전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이다.

먼저 고려할 부분은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감독기관이 감독 대상을 찾아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역출장’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이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관제탑이 공항 밖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용도 문제다. 올해 금감원이 계획한 검사는 707회, 투입 연인원은 2만8229명이다. 지금의 검사 규모를 유지하려면 출장비와 숙박비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 금감원 예산 상당 부분이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은 결국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위기 대응력이다. 금융은 사고가 터진 뒤 대책회의의 날개를 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시장이 급변하면 금융당국과 감독당국, 금융회사들이 밤과

새벽, 주말을 가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 금융에서 물리적 거리는 때로 의사 결정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손실의 크기와 직결된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금융선진국이 오랜 기간 공공부문 일자리를 수도 밖으로 분산하면서도 핵심 금융감독기관을 런던, 파리, 도쿄에 두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이탈 문제도 변수다. 금감원은 변호사와 회계사, 계리사, IT 인력 등 전문 인력 비중이 7월 말 기준 전체 임직원 2479명 중 1050명에 달하고 있다. 지방 이전이 현실화되면 이들 전문직의 상당수가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은 정권과 관계없이 항상 작동해야 한다. 조직을 쪼개든 옮기든 기준은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 금융시장의 안정이어야 한다. 지역 거점을 강화하고 일부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관제탑을 시장에서 떼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금감원의 간판과 주소, 수장의 색깔을 정권마다 바꾸려 든다면 흔들리는 것은 금감원 조직 하나가 아니다. 금융시장과 감독 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제발 2년째 거듭되는 시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을 멈추길 바란다.

/linh@metroseoul.co.kr

‘아직은 앞선다’는 안도



기 지 수

차 현 정
(산업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적이 빨라지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공정 등 고부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앞서 있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의 격차에 안심하기는 어렵다.

중국 낸드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세계 낸드 시장에서 점유율 14%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330억 위안(약 6조8000억원)을 조달해 생산라인 고도화와 차세대 낸드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D램에서도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7% 수준이지만 HBM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CXMT가 2028년 중국 D램 수요의 약 50%, HBM 수요의 40%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92%에 달했던 중국의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웨이퍼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비율이 2035년 34%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중국의 성장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첨단 장비 확보와 수율 등에 한계가 있고 HBM과 고부가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에서는 한국 업체와 격차가 크다. 중국 현지 업체들이 예상하는 HBM3급 제품 자급 시점도 약 2년 뒤다.

다만 기술 격차가 곧 시장에서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량과 점유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가격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규모 정책 지원과 내수 시장을 갖춘 중국 업체들이 생산 확대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는 점도 경계할 부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가진 우위는 분명하다. HBM과 eSSD 등 고부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제품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격차가 앞으로도 당연히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중국의 추격을 위기로 볼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격차가 계속될 것이라 낙관하기도 어렵다.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몇 년 앞서 있느냐보다 그 격차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hyeon@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8일 (음 7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60년생 여자를 조심하세요. 72년생 친구에게 심한 언행을 하지 않게 말을 조심하세요. 84년생 끝내는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소

49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 61년생 하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73년생 이제야 호기를 만날 것입니다. 85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입니다.



호랑이

50년생 교육 상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62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 74년생 귀하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토끼

51년생 자신을 돌아보고 분수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63년생 보안을 해 나가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75년생 남의 재물을 쉽게 탐내지 마세요. 87년생 득은 없고 손실만 이 따를 뿐입니다.



염

52년생 유행성 독감이나 전염병에 조심하세요. 64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76년생 늘 조심성 있게 나아가세요. 88년생 음과 양이 화합하고 상하가 어께를 나란히 합니다.



뱀

53년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65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77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89년생 즐거운 인생을 꾸꾸면 좋습니다.



말

54년생 리더십이 뛰어나 지도자격입니다. 66년생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아 가세요. 78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90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호랑이

55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67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79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91년생 공로를 세워 추앙을 받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68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80년생 성실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92년생 귀하의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닭

57년생 기분 아주 좋은 날입니다. 69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81년생 마음을 바꾸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93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개

58년생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70년생 이익이 상당합니다. 82년생 눈 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세요. 94년생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됩니다.



돼지

59년생 돌발상황에 대처를 충분히 하세요. 71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3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험합니다. 95년생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법의 대응

법은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학문으로서 법을 공부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법 체계의 설계는 ‘평균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사람’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을 존중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전제가 법의 작동 기준이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이런 기준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행위가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 데이터 폭력의 가해자는 상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함박하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다. 단순히 화가 난다고 또는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남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도 일어난다. 평균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인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가해자에게는 법도 그에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수사에 협력하는 것도 소극적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가해자를 옥죄는 법이 필요하다. 폭력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신변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가해자는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경고하는 수준으로만 끝난다면 범죄를 예방하기 힘들다. 법은 국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법의 지나친 규제가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누군가 생명을 잃은 뒤에는 법의 어떤 보호도 의미가 없다.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법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상식을 무시하는 가해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져야 할 것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3호	
일간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슄도쿠

결합형 슄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9	1	2	8	8	2	9	6
2	6	9	1	9	2	1	8	8
2	8	8	1	6	9	9	1	8
6	1	1	9	2	2	9	8	8
8	2	8	6	9	1	1	2	9
9	2	9	8	1	8	6	2	1
8	8	2	9	1	9	2	6	1
9	1	2	8	6	8	8	1	9
1	9	6	8	2	1	8	9	2

2	9	2	1	8	6	1	9	8
8	1	6	9	2	9	8	1	2
8	9	1	8	2	6	9	2	1
9	1	9	2	6	1	8	2	8
6	8	2	8	1	2	1	9	1
2	8	1	2	9	8	9	6	1
1	6	8	9	2	1	9	8	1
1	2	8	6	1	9	2	8	9
9	2	9	8	1	8	1	2	6

칠레의 화이트 와인... 몬테스 주니어의 엿지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39

따라서 읽다보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각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칠레라면 아무래도 레드 와인이 더 친숙한데, 칠레 스파클링 와인은 마셔본 적이 있었나속으로 반문하다가, 칠레 알바리노 와인에서는 웬만한 와인애호가라도 손을 들게 된다.

칠레 와인너리 몬테스의 수석 와인메이커인 아우렐리오 몬테스 주니어(Aurelio Montes Jr.)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가볍고 편하게 마시기 좋은 화이트 와인의 열풍이 풀고 있지만 칠레는 이전부터도 서늘한 기후의 산지에서 이런 와인들을 만들어오고 있었다”며 “샤도네아나 소비뇽 블랑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름에 다 나왔지만 그는 몬테스의 설립자인 아우렐리오 몬테스의 아들이다. 현재 몬테스 양조팀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어쩌다보니 와인너리를 맡게된 2세대라고 보면 오산이다. 농업과 와인 양조를 전공한 것을 비롯해 전세계 주요 와인 산



칠레 와인너리 몬테스의 수석 와인메이커인 아우렐리오 몬테스 주니어(Aurelio Montes Jr.)가 몬테스 화이트 와인 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지를 둘러보며 경험을 쌓았고, 칠레 테루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몬테스가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그가 이끈 와인너리 카이켄이 아르헨티나 프리미엄 와인의 상징이 되면서 간간히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아르헨티나에서 칠레로 돌아온 것은 지난 2016년이다.

그가 생각할 때 와인 양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이 아니라 포도다. 그래서 훌륭한 와인메이커라면 제대로된 포도밭을 찾을 줄 알아야 하고, 테루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칠레 지도를 떠올려보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고, 폭은 좁다. 북쪽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다는 아타카마 사막이, 남쪽으로는 빙하가 떠다니는 파타고니아가 있다.

그는 “칠레는 화이트 품종은 남부로, 레드 와인은 북부로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와인 양조에 있어 진정한 쿨 클라 이밋 지역은 남북이 아니라 차가운 해류가 지나는 해안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주니어가 프리미엄 화이트 와인의 산지

로 낙점한 곳 중 하나가 자파야 빈야드다. 산티아고에서 오히려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이라 사막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덥지 않을까 싶지만 해안과의 거리가 단 11km로 가깝다 보니 오히려 포도가 완숙될 수 있을까 싶은 냉장고 같은 환경이다. 알바리노는 스페인의 화이트 품종이다. 화이트 와인의 산지로서 칠레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입증하기 위해 알바리노 재배에 도전했지만 어려움을 겪다가 성공한 곳이 바로 자파야 빈야드다.

‘몬테스 아우터 리미트 알바리노’는 처음 향에서는 살구같은 핵과류가 소극적으로 느껴지지만 입안에서는 과실미가 팡팡 터진다. 다른 화이트 품종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수확할 만큼 천천히 완숙되어 과실은 신선하고, 산도는 생동감이 있다. 해안가다운 짙은 미네랄로 익힌 해산물이나 조개구이와 잘 어울릴 와인이다.

‘몬테스 스파클링 엔젤 브뤼’는 2차 발효를 병 속에서 진행하는 전통적인 샴페인 양조 방식으로 만들었고, 숙성 기간도 빈티지 샴페인 수준과 같은 36개월이다. 포도품종은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반반씩 섞었다. 초기에는 피노누아의 비중이 더 높았지만 자파야 샤르도네의 청량감을 더하기 위해 변화를 주었고, 샤르도네의 비중을 점차 더 늘려갈 예정이다. 기포는

촉촉하면서 힘이 있고, 입 안에서는 자파야 샤르도네의 바삭한 산도가 인상적이다. 장어 같은 기름기 있는 생선과 같이 페어링해도 좋을 스파클링이다.

몬테스 스파클링 엔젤 브뤼가 진지함이 라면 ‘몬테스 루미스’는 경쾌함이다. 언제 어디서든 마시기 편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고자 했다.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실에 산도도 탄산도 과하지 않아 그야말로 술술 넘어가는 스파클링 와인이다.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2차 발효를 진행하는 샤르마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효모 양급과 10개월간 접촉해 질감과 여운이 잘 살아 있다. 2년 전에 새로 내렸는데 칠레 내수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 아직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없다.

사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몬테스는 화이트 와인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았다. 몬테스 소비뇽 블랑은 1990년 세계 와인 박람회인 비넥스포에서 금메달을 받았고, 첫 스파클링 와인인 ‘스파클링 엔젤’이 선을 보인지도 이미 10년이 넘었다.

현재 몬테스의 전체 포도밭 가운데 화이트 품종의 비중은 30%지만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알바리노 뿐만 아니라 리슬링과 세미용, 마르산느까지 몬테스의 도전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SLI이 캐나다를 거점으로 영어권 콘텐츠 공동개발을 본격 확대한다. /SLI

SLI, 캐나다 거점 ‘글로벌 IP 공동개발’

CAPCA서 영어권 4개 프로젝트 개발한·캐나다 협정 타고 공동제작 확대

SLI이 캐나다를 거점으로 영어권 콘텐츠 공동개발과 글로벌 공동제작을 본격화한다. 완성된 K-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현지 제작사·크리에이터와 기획 단계부터 협업하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IP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LI은 2024년부터 캐나다를 북미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현지 제작사와 크리에이터, 콘텐츠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공동개발 기반을 구축해왔다. 캐나다 비영리단체 RESO(Racial Equity Screen Office)와는 한국과 캐나다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CAPCA(Canada-Asia Co-Produc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CAPCA를 통해 한국 드라마 IP를 기반으로 한 영어 리메이크 프로젝트 2편과 영어 오리지널 프로젝트 2편 등 총

4개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SLI은 캐나다의 제작 인프라와 북미 시장 접근성, 정부의 공동제작 지원 제도에 한국의 IP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한-캐나다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 공동제작 확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SLI은 캐나다를 시작으로 글로벌 공동창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영어권 콘텐츠 개발 및 공동제작을 통해 글로벌 IP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준서 SLI 대표는 “K-콘텐츠는 완성된 작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와 기획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 IP를 공동 개발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캐나다가 시작으로 글로벌 공동창작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새로운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시네마 “췌드라마·음악다큐도 극장에서”

이준익 첫 췌드라마 내달 9일 공개
오아시스 공연 다큐도 단독 상영

롯데시네마가 9월 단독 개봉 콘텐츠인 ‘뽕시픽’ 라인업을 공개했다. 췌드라마부터 음악 다큐멘터리, 재개봉작, 애니메이션까지 장르를 확대했다.

오는 9월 9일에는 췌드라마 ‘아버지의 집밥’과 다큐멘터리 ‘오아시스: 돈 룩 백 인 앵거’를 선보인다.

아버지의 집밥은 이준익 감독의 첫 췌드라마 연출작이다. 세로형 프레임에 그대로 대형 스크린에 상영한다.

정진영, 이정은, 변요한 등이 출연해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 모바일 중심의 췌품 콘텐츠를 극장에서 선보이는 방식이다.

오아시스: 돈 룩 백 인 앵거는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재결합 공연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9월 16일에는 영화 ‘코다’를 개봉 5주년 기념으로 단독 재개봉한다. 9월 23일에는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바다 탐험대 옥토퍼 어보브 앤 비온드: 두근두근 대자연 어드벤처’를 선보인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롯데시네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영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액터스 하우스’ 6인 공개

김고은·류승룡·신민아 등 총출동

부산국제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액터스 하우스’가 올해 더욱 풍성한 배우 라인업으로 관객을 만난다. 2021년 신설된 액터스 하우스는 동시대 대표 배우들이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며 연기 철학과 작품 비하인드, 배우로서의 고민을 관객과 직접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김고은, 김민하, 류승룡, 신민아, 이민호, 주지훈 등 6명이 참여한다. 김고은은 ‘은교’를 시작으로 ‘차이나타운’, ‘도깨비’, ‘대도시의 사랑법’, ‘파묘’ 등 장르와 캐릭터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의 연기 인생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민하는 ‘파친코’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이자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의 주연으로도 관객과 만난다. 류승룡은 ‘7번방의 선물’, ‘극한직업’, ‘인생은 아름다워’ 등 대표작을 통해 쌓아온 연기 철학을 공유한다. 신민아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갯마을 차차차’부터 ‘디바’, ‘악연’ 등 다양한 장르에서 보여준 연기 변신을 이야기한다. 2026 액터스 하우스는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예매 방법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독일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 서울 상륙

내달 12~21일 문화비축기지 개최

독일 뮌헨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를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옥토버페스트 서울 2026’이 다음 달 열린다.

도이치옥토버페스트코리아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파울러너, 크롬바커, 슈나이더, 벨텐부르거 등 독일 맥주 10종과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 OBC가 참여한다. 독일

현지 축제 전용 맥주잔도 할레브란트 고리와 DHL 서플라이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먹거리로는 글로벌 케이터링 기업 아라마크가 슈바이한센, 독일식 소시지, 비프슈니첼, 프레첼 등 독일 요리를 선보인다. K-치킨도 함께 마련해 독일 맥주와의 조합을 선보인다.

독일 축구 명문 구단 FC 바이에른 뮌헨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전용 부스를 운영하고 협업 굿즈를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일본은행 부총재 “정책금리 계속 인상, 금융안정 정도 조정”
▲빌 게이츠 “AI 피해 대비 위해 규제와 국제적 협력 필요”
/사진 뉴시스

▲중티베트 산사태 실종자 558명으로 늘어... 외국인 260명 포함
▲트럼프, 사우디 핵협정 의회 제출... ‘이스라엘 수교’ 관철방안은 불분명

▲日 도야마·이시카와 기록적 폭우... 18만명에 긴급 안전 확보
▲“헤그세스, ‘갈등 속 사임설’ 육군장관 후임에 본인 대변인 검토”



백화점 성장세
대형마트 부진
소비 양극화 심화
L1

metro®

Life

패션업계
중고에 눈돌렸다
리커머스 부상
L2



작은 마을 품은 성처럼... 층층이 펼쳐지는 '초록의 풍경'

아파트의 미학(美學)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내려 버스로 5분가량 이동하자 역 주변의 분주한 풍경이 차츰차츰 바뀌었다. 저층 주택과 골목이 이어지는 조용한 원도심 한가운데, 언덕을 따라 높이 솟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롯데건설이 시공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조성됐다. 지하 6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가 들어선 청량리 일대는 정비사업을 거치며 노후 주거지에서 신축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다.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6'를 비롯해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용두동 '용두 롯데캐슬 리치' 등 롯데캐슬 단지가 잇따라 들어섰다. 청량리8구역 재개발도 이주 마무리와 철거 단계에 접어들면서 브랜드 타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단지 인근 청량리역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을 비롯해 KTX와 ITX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과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시설은 삼육초등학교와 청량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청량리역 주변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경사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되는 구조다. 공간이 층층이 조성된 모습은 작은 마을을 촘촘히 채운 '도심 속 성(城)'을 연상시킨다.

입주민을 맞이하는 문주는 상부를 깊숙이 파낸 입체적인 형태로, 단지 입구를 한층 웅장하게 만든다. 도로와 맞닿은 1층 조경은 단단한 회색 건축물에 산뜻한 첫인상을 더한다. 동사이 간격이 넓지는 않지만, 곳곳에 교목과 원뿔형 상록수, 낮은 관목을 심어 건물 사이 빈틈을 채웠다. 오밀조밀하게 연결된 마을을 둘러보는 듯 하다.

단지 중앙부에는 통유리로 둘러싼 티하우스가 자리한다. 내부는 세로로 긴 통창을 여러 면에 내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



청량리 재개발 761가구 신축단지 경사면 따라 자연·심·놀이로 채워 수목 촘촘히 심은 오밀조밀한 조경

단지중앙 정원 감상하는 티하우스 바위 사이 소나무 배치한 석가산 자연 담은 놀이터와 조형물 배치

오도록 했다. 청밖으로는 커뮤니티시설과 나무, 관목이 겹쳐 보여 실내에서도 정원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티하우스 바로 앞에는 검은색 수로가 나선형으로 감긴 수경시설이 놓였다. 수로를 회색 자갈로 채우고 가장자리에는 흰색 자갈을 둘러 형태를 또렷하게 살렸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소용돌이를 떠올리며 조형적 재미를 더한다.

108동 옆에는 암석을 층층이 세운 석가산이 있다. 뾰족하게 솟은 바위 사이로 가지를 낮게 펼친 소나무를 심고, 아래는 키 작은 식물로 채웠다. 바위의 거친 질감과 단조로운 풍경이 조화를 이룬다. 한국 산수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꽃사과와 산수유 등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목도 단지를 풍성하게 만든다. 꽃사과는 봄이면 흰색이나 연홍색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작은 열매를 맺는다. 산수유는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을 피운 뒤

가을이면 붉은 열매로 색을 바꾼다. 사계절 푸른 상록수 사이에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섞어 계절마다 달라지는 색을 더했다.

단지 한쪽의 휴게공간은 잘게 나눈 돌조각을 모자이크처럼 붙여 벽면을 꾸몄다. 벽에 크게 낸 사각형 틈으로 주변 나무와 동네 풍경이 액자처럼 들어온다. 내부에는 흰색과 주황색의 작은 탁자와 의자를 놓아 야외에서 가볍게 캠프이나 소풍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냈다.

어린이 놀이공간은 위치와 주제를 달리해 다양하게 구성했다. 대표적인 공간은 단지 가장자리의 경사면에 조성한 '숲속 산책길'이다. 나무 사이로 굽이진 오솔길을 표현했다.

놀이터는 위아래로 나뉜 지면을 계단과 오르막 놀이판, 연결통로, 원통형 미끄럼틀로 이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야 오갈 수 있는 높이를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팔레트 블록' 놀이터는 빨간색과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입힌 블록 구조물이 특징이다. 사각형과 원, 아치 등 여러 도형을 쌓아 올렸다.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여러 색으로 표현한 공간이다.

조형물 '축제'는 붉은색과 푸른색, 황금색을 이용해 층층이 세 사람을 형상화했다. 일상에서 행복이 피어나는 순간이 축제이자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조경은 한정된 부지를 층층이 나누고 그 안을 자연과 심, 놀이로 촘촘하게 채웠다. 언덕이라는 조건을 영리하게 활용해 단지 고유의 풍경을 만들어낸 점이 특징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단지 중앙부 티하우스. 통유리 외관 주변을 교목과 상록수, 관목이 둘러싸고 있다.
2 티하우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원형 수경시설.
3 한국 산수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담긴 석가산.
4 높낮이가 다른 수목을 배치한 단지 내 중앙정원.
5 단지 내 조형물 '축제'. 붉은색과 푸른색, 황금색의 인물 형상이 층층이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최고 성적 노리는 한국 배드민턴...세계 최강 안세영, 2연패 겨냥
▲'음바페 해트트릭' 레알, 모리뉴 감독 홈 복귀전서 4-1 승리 /사진 뉴시스

▲'파리 동메달' 복싱 임애지, 훈련 중 부상으로 A G 출전 무산
▲손흥민 대체자 찾았나...사비우, 토트넘 데뷔전에서 1골 1도움

▲고우석, 트리플A서 3경기 만에 무실점...9회 등판해 1이닝 퍼펙트
▲'김상식 매직' 베트남, 태국 꺾고 '동남아 월드컵' 첫 2연패

이 광고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묵묵히 변함없이”

많은 부사들이 있지만
더 매력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사는 이것

빛나지 않아서
빛나는 부사

시련이 닥쳐도
변화의 태풍이 불어도
좋은 날이 와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루 하루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변함없이

누군가 우리의 필살기를 묻는다면
우리가 답하게 될 그 부사

“묵묵히 변함없이”

SK hynix

초심